

# 교과서연구

제 47 호

2006.4

## 차 례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발행인 / 박현수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강환동, 김양옥, 김정호,  
김차진, 윤광원, 최해홍,  
홍후조
- 편집협력위원(시·도 교육청)  
윤명숙(서울), 박경옥(부산),  
김형경(대구), 최성환(대구),  
최종우(인천), 이경임(광주),  
김창수(대전), 박홍수(울산),  
이덕진(경기), 김영각(강원),  
손영철(충북), 김종권(충남),  
이강엽(전북), 이재춘(전북),  
임을빈(전남), 김상수(경북),  
차혜숙(경남), 강덕수(제주)

### 권두언

교육 개혁의 의미와 논리 / 허 숙 ..... 4

### 특별 기획

####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 김정호 .....	6
초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과 전망 / 최용규 .....	12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과 전망 / 최병모 .....	18
고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과 전망 / 진재관 .....	25
초등 학교 사회과 지역 교과서의 변천과 전망 / 김만곤 .....	31
미국의 교과서 채택 제도-캘리포니아 주 사회과 교과서 채택을 중심으로 / 노희방, 조은미 .....	37

### 현장 교육

극화 학습으로 '상상하는' 역사 이야기 / 이연경 ..... 45

### 논 단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 이명희 .....	50
현대사 서술의 전환적 모색 / 구난희 .....	54

### 연 재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제도와 교과서 제도-변화의 기로에 선 교육 / 장원창 .....	60
---	----

\* 표지 글씨 : 신두영

\* 편집·디자인 : 대한교과서(주) 편집팀

## 편수 행정의 발자취

자율 학습이 가능한 모형 교과서 개발 / 정준섭 .....	64
제 6 차 검정 교과서 제도 개관 / 허 강 .....	69

## 단 상

‘교과서의 날’ 제정에 대한 소견 / 박용진 .....	75
--------------------------------	----

## 탐 방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18) - 양철우 / (주)교학사 대표이사 사장 .....	79
--	----

## 자 료

2005년도 연구 보고서 소개 .....	82
교과용 도서 저작권 보상금 기준 .....	84

■ 연구재단 소식 .....	85
■ 「교과서연구」 원고 모집 안내 .....	86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	87
■ 제 4 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안내 .....	88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1 동 1018-2 세원 빌딩 4 층
- 홈 페이지 : [www.ktrf.re.kr](http://www.ktrf.re.kr)
- 전화 : (02) 2651-1950, 팩스 : (02)2651-1954, E-mail : [editor@ktrf.re.kr](mailto:editor@ktrf.re.kr)

## 1. 무엇이 교육 개혁인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육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세상은 다 변하는데 우리 교육만 기득권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 발전이나 개인의 능력 개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입시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학교 교육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팽창하고 교육 이민이 증가하는 것이라면서 공교육의 붕괴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 교육 개혁의 의미와 논리

글 허 숙(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정말 우리 교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가? 그 동안의 교육 개혁은 모두 실패하였는가? 광복 이후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교육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는 하였다. 또,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개혁을 주관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 개혁 기관들이 설치되어 왔고, 많은 개혁의 제안과 주장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대학 입학 시험 제도만 해도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나라 교육 문제의 근원이 대학 입학 시험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학 입학 시험 제도만 개선되면 모든 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한다. 그 결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만 바뀌면 대학 입학 시험 제도를 교육 개혁의 표적으로 삼아 뜯어고치고는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 입학 시험 제도가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뀐다고 푸념을 하기도 한다.

도대체 ‘교육 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이 바뀌어야 교육 개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인가? 교육 개혁이라는 것이 교육과정이나 바뀌는 것도 아니요, 대학 입학 시험 제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며,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면, 교육 개혁의 실체는 무엇인가?

## 2. 교육은 사회 경쟁 구조의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육이 다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더 이상 교육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분명 우리 교육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교사는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쓸데없는 내용을 누가 더 많이 머리에 집어넣는가를 경쟁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이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교사가 무능하고 학교가 변화하지 못해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학교가 인성 교육, 창의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교육이 팽창하고, 학원들이 그러한 좋은 교육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학교 교육에 경쟁 체제가 부족해서 교사나 학생들이 나태하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인가?

교육은 우리 사회가 갖는 경쟁 구조의 피해자일 뿐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사람들이 가지는 온갖 욕망들 - 출세, 돈, 명예, 계층 상승, 기득권의 유지와 계승 등 - 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해 왔다. 이것은 우리 교육이 가지는 역사적 운명인지도 모른다. 역사의 단절 속에서 전통적인 사회 계층 구조가 무너지고 서양의 평등주의가 일시에 도입됨으로써 더 이상 출생 신분이나 가문, 사회적 공헌도에 따른 계층 형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른바 출세라고 하는 사회 계층 이동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고, 교육은 사람들의 끝없는 출세 욕구의 싸움판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교육의 제도나 내용 또는 방법을 바꾼다고 하여 교육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 또는 인식이 달라지겠는가?

## 3.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가?

요즘 교육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분석해 보면, 많은 경우 '교육 경쟁력 강화' 라고 하는 논리를 읽을 수 있다.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무엇을 경쟁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질이 향상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교사 평가를 통해 잘 가르치기 경쟁을 한다면, 학교 평가를 통해 좋은 학교 만들기 경쟁을 유도한다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경쟁 체제' 라는 말 속에는 다분히 '비싼 학교 만들기 경쟁' 또는 '사교육비 투입하기 경쟁'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진정한 교육 개혁의 길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가지는 지나친 사회 계층 배분 기능의 짐을 포기하고 벗어나는 길이어야 한다고 본다. 경쟁 체제를 강화하여 아동들의 우열을 가르고 사회 계층을 배분하는 역할을 더 강하게 하기보다는, 교육 스스로 힘을 줄여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의 경쟁 구조를 교육이 혼자서 떠안고 가는 멍에를 벗어던지는 일에 교육 개혁의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육은 교육다운 모습이 되어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이야기하고, 창의성, 책임감, 시민 정신 등을 말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

#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sup>1)</sup>

글 김정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획처장)



## I. 왜 교육과정인가?

사회과는 시·공간 차원에서 사회 현상을 조명하고,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역할을 가르치는 교과이다. 그러므로 사회 변동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과 교육과정도 수시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교육을 받는 세대들이 10년, 20년 뒤에는 이 나라의 주체가 될 인적 자원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발휘하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사회의 틀이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는 ‘미래를 열어 가는 사회과 교육’이라는 비전을 전제로 하였다. ‘미래 한국이 지식 문화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강화’<sup>2)</sup>하는 데 사회과 소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의 교육과정 수정·보완 개정은 사회과 교육의 내재적 문제점 보완과 사회 변동 상황 및 국가·사회적 요구 반영 등을 위하여 꼭 시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 필요성을 다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나눌 수 있다.

- 세계화·지역화·지식 정보화 등 현대 사회의 변동 양상 반영
- 저출산 고령화·참여 민주주의 등 시대 상황 보완
- 역사 교육·지리 환경 교육·경제 교육·법 교육 등 국가 정책적 요구 반영

- 학습 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 제고
- 국가 교육과정의 분권화·자율화 요구에 따른 내용 조정
- 교육과정 시행상의 내재적 문제점 해소

그러면 현행 교육과정의 쟁점은 무엇일까? 교육 목표가 올바른가(시민 교육-사회 과학 교육), 내용이 적절한가(이론 체계-생활 경험), 국가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로 되어야 하는가(대강화-세분화), 학습자가 바라는 것을 반영하였는가와 같이 모든 교과 공통의 문제말고도 사회과에는 또다른 쟁점이 두 가지 있다. 내용 구성의 통합-분과 논쟁과 교육의 중립성 여부가 그러하다. 이 글은 ‘사회과 내용 구성의 영역별 집중화, 교육과정 체제의 대강화, 교육 내용의 이념적 중립성’을 주제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 교육과정이 모든 사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 → 교육과정 해설 → 교과서 → 교사용 지도서 → 교수·학습 자료’로 이어지는 과정마다 소임이 다르다. 교육과정은 뒷자료를 이끄는 간략한 지표이고,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대표적인 교재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정하는지를 알면 교과서와 지도서 및 기타 교재 개발 방향도 알 수 있게 된다.

## II. 사회과 교육과정의 쟁점

### 1. 사회과 내용 구성의 영역별 집중화

사회과는 사회 현상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하여 통합적 학습을 강조한다. 우리는 초등 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를 묶어 통합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왔다. 사회과 통합은 교육과정 차원(생활 사례 중심의 초학문적 통합, 스트랜드 중심의 학제적 통합, 영역별 내용의 병렬적 구성 등), 교과서 차원(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통합적인 단원 설정), 교수·학습 차원(교과서를 통합형으로 재구성한 자료 사용)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사실, 사회 현상 자체는 지리나 역사 또는 일반 사회(정치, 법, 경제, 사회, 문화)가 어느 한 영역만으로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서, 사회 과학계도 분화와 통합을 같이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영역별로 된 교사 교육 때문에 통합과 분과 간 논란이 있다.

현행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의 각 학년마다 세 영역을 배열해 놓는 융합형 통합 방식을 시행해 왔다. 그런데 이 융합형은 어느 한 영역을 전공한 교사가 다른 영역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 말고, 학생이 사회를 통합적으로 인식한다는 학습 효과를 아직 검증받은 사례를 찾지 못하였다. 그 동안 영역별 교사 전문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과 체제로 되돌아가자는 여론이 많았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중학교에서 학년별 한 영역 집중 학습제로 바꾸는 것이다. 즉, 중학교 각 학년마다 한 개 영역만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영역별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쟁점의 대안인데, 교과서나 교수·학습 차원에서는 영역 간 통합을 보완해 나갈 수도 있다. 중학교 지리 영역은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를 통합하고, 고등 학교 1학년 국사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계시켜 ‘역사’로 바꾼다. 일반 사회 영역도 고등 학교 1학년 내용을 스트랜드 중심으로 구성하여 영역 내 통합을 하고

자 한다. 이런 방향의 기대 효과는 사회과 교사가 특정 전공 영역 중심으로 가르쳐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통합이 아무리 이상적인 사회과 교육의 모형이라 하여도 교육과정과 교사가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 2. 교육과정 체제의 대강화

국가 교육과정의 구성 형식과 내용 정도에는 상세화와 대강화 두 가지 모형이 있다. 선택 준거는 크게 공교육 체제에서 정부가 관여해야 될 일, 교과서 저자와 수업 지도를 하는 교사의 자율권·재량성 범위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대강화로 하였다. 대강화는 현행 ‘주제-소주제-성취 기준’ 형식에서 소주제를 생략하고 성취 기준을 최소 필수로 축소시킨 형태로 보았다. 대강화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국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 부분 이양하는 대강화는 구체적인 내용 요소를 모두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최소 필수 목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 저자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전략(자료 및 내용 선정 등)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다양화·차별화라는 검정 취지를 살릴 수 있고, 교사도 내용 암기 유도적 수업 대신 학습자 수준에 맞도록 내용과 방법을 도입하여 수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은 ‘선택과 집중, 성취 목표의 최소 필수화, 단원 구성의 유연화’ 전략을 펴 나간다.

교육과정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학교 단위로 넘겨 주어야 한다는 ‘정부 규제 완화·교육 권한의 지방 분화·교과서 저자와 학교 교사의 재량권과 자율권 강화·교육과정 실천 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실천 수단이 교육과정 대강화이다. 물론, 국가 교육과정은 성취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그 기준



보통 교육과정에서 특정 이념을  
선전하거나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등 가치 편향적이어서는 안 된다.  
어느 편이든 특정 가치를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이념적 강요일 뿐이다.

만 보고도 교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이 상세화 되면 될수록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실천 과정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교과서 저자나 교사가 자율적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 감축과 다양화 및 자율화를 지향하는 시대 정신에 따라 대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 따른 교육과정 대강화는 소주제명을 삭제하고 성취 기준은 감축하는 방식으로 된다.

### 3. 사회과 교육의 이념적 중립성

사회 현상에는 사실 관계와 가치 체계가 있다. 사실 관계는 진위(眞僞)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상황은 좀더 복잡하다. 보통 교육과정에서 특정 이념을 선전하거나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등 가치 편향적이어서는 안 된다. 어느 편이든 특정 가치를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이념적 강요일 뿐이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헌법 31조)과 이념적 편향성 금지(교육 기본법 6조)<sup>3)</sup> 원칙은 사회과 교육에 꼭 맞는 규정이다. 교육과정은 이 법규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교과서 차원에서 시비가 많다. 이 쟁점은 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지만, 교육과

정 자체도 편향성의 단초를 두지 않도록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 1. 초등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학년별-학기별 단위 배정의 원칙 및 이에 따라 작성된 내용 체계표는 다음과 같다.

3학년 : 2학년 「슬기로운 생활」 및 4학년 이후의 사회과를 고려하여 ‘내용’과 ‘활동’을 함께 담은 통합적 단원으로 구성한다.

4학년 : 지리 교육 영역 3개 단위, 일반 사회 영역 3개 단위 등 6개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 4학년 1학기 교과서가 지역화 교과서로 개발될 점을 고려하여 1학기에 지리 영역 2개 단위, 일반 사회 영역 1개 단위를 배정한다.

5학년 : 1, 2학기 모두 역사 교육 영역 단원으로 구성한다.

6학년 : 지리 교육 영역 3개 단위, 일반 사회 영역 3개 단위 등 6개 단원으로 구성한다.





- 역사 교육 : 중등 역사는 과목 독립을 전제로 하고, 기존의 비판을 수용하여 대폭 개정을 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지리 교육 : 학습자의 일상 생활과의 관련성 증대, 공간적 의사 결정 능력 제고, 세계적·생태적 관점의 반영 등을 지향하며 내용 조직을 단순화하여 교사는 가르치기 쉽게, 학생들은 배우기 쉽게 한다는 전제하에 하고자 다음 방향과 같이 개정안을 개발하였다.
  -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의 유기적 통합과 연계
  - 학습 대상 사례 지역이나 국가 수의 적정화
  - 넓은 지역을 광각의 시각에서 보는 것에서 주밍(zooming)을 통하여 좁은 지역을 엄밀하게 고찰하는 방향으로 진행
  - 내용 배열 순서는 세계적 시각에서 국가를 고찰한 다음에 한국의 주요 지역을 살펴보는 순서(global → nation → community)로 재구성

【표 3】 중등 학교 지리 영역 내용 체계(주제명)

중학교	고등 학교 10 학년
1. 내가 사는 세계	1. 국토와 지리 정보
2. 다양한 기후 지역과 주민 생활	2. 지형과 인간 생활
3. 다양한 지형과 주민 생활	3.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4. 지역마다 다른 문화	4. 문화 환경의 다양성
5.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5. 장소 인식과 공간 행동
6.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6. 지역 개발
7. 자원의 개발과 이용	7. 환경 문제와 환경 보전
8. 지역에 따라 다른 환경 문제	
9. 세계 속의 우리 나라	
10. 통일 한국의 미래	

- 일반 사회 교육 :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핵심 내용 누락과 중복, 하위 영역별 내용 구성의 계열성 부족, 사회 과학 전달 모형의 주제 간 정합성 결여’ 등으로 진단하였다. 개정 시안의 방향은 ‘일반 사회 영역 내의 통합, 대강화, 주제별 목표 진술의 명료화와 구체화 및 개념 또는

주제 중심으로 주요 내용 제시’로 잡았으며, 10학년 사회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개념적 지식 간의 통합, 지식과 사고의 통합, 지식과 가치의 통합 등을 토대로 통합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

【표 4】 중등 학교 일반 사회 내용 체계(주제명)

중학교	고등 학교 10 학년
1. 개인과 사회 생활	1. 사회 현상과 문화
2. 문화의 이해와 창조	2. 공동체와 정의
3. 민주주의와 정치 생활	3. 사회 생활과 환경
4.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4. 세계화와 지역화
5. 경제적 삶과 경제 문제	5. 조화로운 세상과 인권
6. 시장 경제의 이해	6. 변화와 미래 사회
7. 국민 경제의 이해	7. 삶의 질
8. 우리의 생활과 법	
9. 인권 보호와 우리의 헌법	

이상과 같은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따른 향후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큰 방향은 교육과정의 개방화를 이루어 사회 변동에 적시 대응하고 교사의 수업 자율권을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 Ⅳ. 교과용 도서 편찬 방향

교육과정을 고시하면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는 검정 교과서 개발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는 교육과정을 정밀하게 해석하고 교과서의 내용 구성 모형을 설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창의적 사고력은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전제로 한다.

학습 모형을 ‘현존 지식의 정확한 이해 → 방법적 지식의 체득 → 이론과 현실의 연계를 통한 실용적 학습 → 정보 자료 활용을 통한 사고력 향상’이라는 가설적으로 상정하고, 이를 위하여 ‘정확성과 균형성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안내하고,

정부는 교과용 도서 저자의 독창적 창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검정 기준에 참신성과 독창성 항목을 다수 강조하거나,  
교육과정 해석과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자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다.  
다만, 내용 오류는 확실하게 막아야 한다.

내용도 이론과 현실을 연계시켜 학습의 실용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정보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고력을 길러 내는 교과서'를 주문한다. 그리고 이제는 내용이 틀리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과서는 더 이상 어떤 경우에도 학교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교과용 도서 저자의 독창적 창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검정 기준에 참신성과 독창성 항목을 다수 강조하거나, 교육과정 해석과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자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다. 다만, 내용 오류는 확실하게 막아야 한다. 국가가 교과서의 질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된다.

교과서 유형을 확대 개편하여, 교육과정의 주요 원리는 서책으로 간명하게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정보 자료는 홈 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의 교과서 유형 전환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학습 자료를 현실에 맞추어 늘 새로운 소재로 제공할 수 있고, 원리를 설명한 교과서는 자주 수정할 필요도 없게 된다. **연**

- 1) 이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5년도에 수행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와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에서 가려 뽑은 것임을 밝혀 둔다.
- 2) 교육인적자원부의 비전(<http://www.moe.go.kr/organization/organization10.html>)
- 3)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

# 초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과 전망

글 최용규(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사회과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회과인들은 하나같이 좋은 사회 교과서를 만나고 싶은 열망을 지니고 있다. 사회과 교육의 본질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과서, 학생들이 흥미·관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교과서,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문화 유산으로서의 핵심적 지식과 가치를 충실히 전달해 주는 교과서, 또 화려한 장점, 풍부한 내용, 다양한 사회과 교육의 접근 방법과 고차적 사고력의 신장까지를 담아 내어 선진국형 교과서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교과서를 가져 보자는 것이 사회과인 모두가 공감하는 큰 꿈이다. 이와 같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교육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발현되어야 하고, 그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의 교육적 기능과 교재 구성의 논리와 방법에 대한 사회과 연구자의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8·15 광복 이후, 미국 사회과의 영향하에 초등학 교에서 종래의 지리, 역사, 공민에 대신할 종합교과로서의 사회 생활과가 신설되었으나,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제1차 교육과정 제정을 거치며 한국적인 풍토에 맞는 사회과로의 조정 과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2차에서 제7차까지의 교육과정 개정까지의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교과로서 사

회과의 정체성 확립을 추구하는 가운데 질 높은 사회과 수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이 글을 통해 좋은 사회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힘써 온 긴 여정을 되돌아보는 일은 단지 지나간 과거를 회고하기 위함이 아니다. 한층 더 질 높은 사회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회과인의 마음이 어디에 모아졌고, 또 무엇을 시도했는가를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함으로써 오늘의 교과서가 처한 위치와 위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될 교과서에 어떤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는가를 전망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는 교과서의 편찬과 연구·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연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현장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가르쳐야 할 모든 교사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이다.

## II. 초등 사회 교과서 변천에 대한 이해

### 1. 초등 사회 교과서의 편찬과 연구·개발의 지난 이야기

초등 사회 교과서 편찬의 6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또 반성적으로 숙고한 내용을 정리하기에 이 글의 짧은 지면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장에서 먼저 초등 사회 교과서 편찬의 긴 여정을 네 시

부산 임시 수도에서 임시 거처에 모인 편수관들이  
또 한 차례 임시 교재(『전시 생활』)를 펴내는 고초를 겪어야 했고,  
1955년 비로소 제1차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 생활 교과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으나,  
교과서 인쇄를 위한 종이까지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궁핍을 견뎌 내야 했다.

기로 나누고, 교과서 편찬 및 연구·개발 과정에서 드러나는 시기별 특징을 네 개의 이야기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른바 역사적 맥락에서의 개관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는 교과서 편찬 및 연구·개발을 주도한 사람들의 교과서관과 당대의 시대적 요청의 접점을 묘사해 본 것이다. 그런 다음 초등 사회 교과서 내용 구성 방식의 변천과 외형적 체제의 변화·발전의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초등 사회 교과서 편찬 및 연구·개발의 여정을 이야기를 통해 되돌아보기로 하자.

#### (1) 첫 번째 이야기

8·15 광복을 맞은 교육자들은 미 군정 당국과 협력하여 민족 교육 회복을 위한 임시 교재를 서둘러 편찬하였고, 곧이어 미국의 사회과학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사회 생활과 교수 요목에 근거한 교과서 편찬을 위해 노력하였다. 초기의 사회 교과서는 4×6판형의 작은 크기와 갱지에 활판 인쇄본으로 편찬되었으며, 내용은 지식 전달을 위한 교사의 설명에 적합하도록 조직되고 서술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문교부는 우리의 힘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준비했으나, 6·25 전쟁으로 교육과정 제정 작업은 지연되고, 오히려 부산 임시 수도에서 임시 거처에 모인 편수관들이 또 한 차례 임시 교재(『전시 생활』)를 펴내는 고초를 겪어야 했고, 1955년 비로소 제1차 교육과정을 제정

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 생활 교과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으나, 교과서 인쇄를 위한 종이까지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궁핍을 견뎌 내야 했다. 제2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사회 생활과는 ‘사회과’로 개명되었는데, 이는 교과서의 정체성을 바로하려는 자기 조정의 발로였다.

1963년 제2차 교육과정기까지 교과서 편찬의 주체는 문교부의 편수관들이었다. 초등 사회 교과서의 성격과 수준은 그들의 사회과관과 교과서관에 의해 좌우되었다. 편수관에 의해 선발되어 그들의 교과서 편찬을 도운 현장의 선도적인 교사들은 다음 둘째 이야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2) 두 번째 이야기

1973년 10월, 당시의 유신 정권은 사회 교과서를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사회과는 이른바 국책 과목이 되었다. 문교부의 편수관들은 국민 정신 교육의 함양을 교과서 편찬 방향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았다. 당시 초등 사회 교과서 편찬 책임을 맡은 편수관의 진두 지휘 아래 초등 사회 교과서 집필을 나누어 맡은 교사들은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초등 사회과 교육의 초석으로, 그리고 초등 사회 교과서 개발의 산증인으로 활약하였다. 한편, 도덕이 사회과에서 분리·독립되었고, 국사 영역의 내용도 사회 교과서에서 분

리되어 별책(국사 5, 국사 6)으로 편찬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국사 교과서는 국사 교육 강화 위원회를 주도한 대학 교수의 영향하에 편찬되었다. 이렇듯 1970년대는 초등 사회과에서도 국사가 전성기를 누렸다.

### (3) 세 번째 이야기

1981년에 고시된 제4차 교육과정에 따른 1종 도서의 연구·개발 업무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되었고, 그에 따라 개발원의 사회과 교육 연구실이 초등 사회 교과서 개발의 주체가 되었다. 교과서 편찬의 정책 결정과 저작권은 문교부가 가지나 교과서 내용의 연구와 집필은 개발원이 가지는 이원체제에 의해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상 변화는 교과서 편찬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라 하겠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전반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은 제4차 및 제6차 교과서를 연구·개발하였다. 교과서 연구·집필 업무가 개발원의 연구원과 그들에 의해 위촉된 교수 및 교사들에게 맡겨짐에 따라, 교과서 편찬에 보다 많은 인력이 참여하게 되고, 개발 과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개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현장의 초등 교사들도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사회과 교육 연구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제5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의 연구·개발 업무는 이화여자대학교 1종 도서 편찬 위원회(위원장 강우철 교수)에 위촉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교육개발원 사회과 연구실의 일부 연구원들은 연구·집필진으로 부분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교과서 연구·개발은 이화여자대학교 1종 도서 편찬 위원회의 연구자와 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제5차 초등 사회 교과서 개발은 특정 개인의 강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기억되게 될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제4, 5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

정 및 제4차 교과서 연구·개발,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1종 도서 편찬 위원회의 제5차 교과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괄목할 성과로는 저학년(1, 2학년) 사회과가 사회과로부터 분리되어 별개의 통합 교과로 편성된 일과 4, 5, 6학년 사회과의 자료집인 ‘사회과 탐구’를 개발한 일, 그리고 4학년 1학기의 ‘사회과 탐구’ 중 지역화 단원의 개발을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위탁한 일을 들 수 있다. 이수 과목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저학년 사회과 내용이 사회과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일은 사회과 자체의 계열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3, 4학년 사회과에서의 지역화 학습의 구현 및 탐구를 위한 자료집 개발은 사회과의 교과정체성을 뚜렷이 부각시킨, 사회과 교육의 발전적 시도로 평가되었고, 사회 교과서 내용의 구조화와 지역화, 그리고 1교과 2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은 제6, 7차 교육과정기까지 이어졌다.

### (4) 네 번째 이야기

1997년, 교육부는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발 업무를 한국교원대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위원회에 위촉하였고, 이어서 1998년에는 그에 따른 초등 사회 교과서의 연구·개발 업무까지도 위촉하였다. 초등 사회 교과서 편찬 업무를 위촉받은 상기 위원회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 방안을 수용하여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 구성 방안을 구현하고자 시도하였고, 학습자의 흥미·능력의 차를 존중하여 수준별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 교수·학습 과정에서 수행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감안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노력이 교육부에서 상징적으로 내세운 교과서 편찬 방안인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서’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세심하게 유의하였으며, 그 결과로 탄생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종전의 교과서와는 커다란 차이





이러한 외형적 체제 가운데 판형과 지질, 색도 활용, 제책 방식은 인쇄 비용, 즉 경제성과 기술 발달 수준에 의해 선택되어 왔다. 활자의 크기, 삽화의 규격, 색도 사용 등의 조건은 학생의 시력 발달에 따른 가독성과 인쇄 매체에 대한 학생의 정서적 반응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조건들이다.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과인들의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지식의 수준을 포함하여 사회과 교육 연구의 더딘 발전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초등 사회 교과서 내적 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 제시 방식을 분석해 본 결과로 판단할 때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구성의 특징에 대한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교사 중심의 개념·일반화 지식의 설명을 위한 설명형 체제를 좀처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문제 해결형 내용 제시 방식을 채택했다고 평가되는 제7차 교과서에서도 확인되는 실상이다.

### 3. 외형적 체제의 변천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판형, 활자 크기, 지질(紙質), 인쇄 방법, 색도 활용, 제책 방식 등이 있다. 이러한 외형적 체제 가운데 판형과 지질, 색도 활용, 제책 방식은 인쇄 비용, 즉 경제성과 기술 발달 수준에 의해 선택되어 왔다. 활자의 크기, 삽화의 규격, 색도 사용 등의 조건은 학생의 시력 발달에 따른 가독성과 인쇄 매체에 대한 학생의 정서적 반응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조건들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컴퓨터 조판, 북 디자인의 도입, 멀티미디어 및 e-learning

등 첨단 기술의 교수·학습 매체와 환경과의 연결을 고려한 편집 체제 개발이 외형적 체제의 새로운 구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의 좋은 교과서 편찬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확대와, 좋은 교과서 만들기에 대한 연구 투자에 기반한 새 교과서로의 상향 이동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 주는 외형적 체제의 변천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판형 : 교수 요목기 교과서와 전시 교재는 4×6 판으로,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로부터 제5차 교육과정기 교과서까지는 국판으로, 제6차와 7차 교육과정기 교과서는 4×6 배판으로 그 크기가 바뀌어 갔다.
- 지질과 색도 사용 : 제3차 교육과정기 교과서까지는 갱지에 흑백 1도의 색상으로 인쇄하였으나, 제4차 교과서부터는 미색 중질지를 사용하고 본문 사진·삽화를 4도 이내의 천연색으로 인쇄하였다. 제7차 교과서부터는 고급 서적지를 사용하여 천연색 사진·삽화의 선명도가 한층 높아졌다.
- 인쇄 기술과 조판 체제 : 광복 직후의 임시 교재와 교수 요목기 교과서는 활판으로 인쇄하였으나, 제1차 교과서부터는 납활자 사식 조판으로 인쇄하였고, 제6차 교과서 이후로는 컴퓨터 조판을 이용하여 다양한 글자꼴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 Ⅲ. 맺음말 : 초등 사회과의 새 교과서에 거는 기대

이제까지 초등 사회 교과서의 변천 내용을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좋은 교과서를 가지고자 하는 사회과인들의 꿈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면도 있고, 반면 아직도 그 실현이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면도 있다. 그와 같은 변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연구·개발될 교과서에 무엇을 새롭게 주문하고, 또 어떤 괄목할 변화를 기대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소회를 제언의 형식을 빌려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새 교과서는 초등 학교 교과서까지도 검정 제도에 의해 발행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현재, 새 교육과정의 고시를 앞두고 현장 연구가 진행 중이며, 다행스럽게도 새 교과서는 초등 교과서까지도 검정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초등 교과서의 검정화는 이미 제7차의 중등 사회 교과서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교과서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둘째, 초등 사회 교과서를 포함하여 초·중등 사회 교과서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각 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내용’에 국한했던 종래의 경향성을 탈피하고, 학생의 사회 인식 활동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질 높은 교과서 개발 체제에 관심과 투자가 모아질 수 있도록 교과서 정책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초등 교사 가운데 유능한 교사를 선발하여 교과서 연구·집필자로 양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 대학원 사회과 교육 전공의 연구 주제로서 각별한 관심과 동기 부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교과서의 외형적 체재 개선을 위해 보다 많은 재정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지질 향상과 사진·삽화는 선명도 면에서 더욱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으며, 본문 내용에도 3~4색도의

바탕을 넣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본격적인 북 디자인이 도입되어, 초등 학생의 학습을 위해 출판되는 어떠한 상업적 출판물에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 교과서 내에 보다 다양한 읽기 자료와 활동 자료를 수록하려면 교과서 쪽수도 더 증가시켜야 하고, 판형도 더 키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격적인 e-book 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학습자의 온라인상에서의 학습 경험과 인쇄 매체를 이용한 학습이 상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다 정교하면서도 치밀한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초등 사회과에서의 통합적 접근과 창의적 활동을 통한 사고력 신장과 자기 주도적인 의미 구성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사회 교수·학습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고양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연구가 교과서 내용 구성으로 재현되는 바람직한 연구 풍토가 진작되어야 할 것이다. **연**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

#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과 전망

글 최병모(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I. 서 언

교육은 미래를 살아 갈 학생을 키우는 작업이며, 그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교과서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그 동안 우리의 학교 교육은 교과서와 더불어 변화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교수 요목 시기부터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내용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질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미 군정 및 교수 요목기부터 현행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본다.

## II.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 과정

### 1. 미 군정 및 교수 요목기(1945~1954)

이 시기는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민족을 위한 교육 재건에 힘썼던 시기로, 국사와 국어를 제외하고는 민간 주도의 자유로운 교재 구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국어 교과서를 가장 먼저 편찬·발행하고,

이어서 사회과의 공민, 역사, 지리 등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1948년부터 김·인정 교과서가 나오기는 했지만 널리 쓰이지 않았고, 학교별로 독자적인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미 군정기인

1945~1948년은 김·인정 혼란기였으며, 1951년에는 전시 독본 교과서를 개발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기까지는 과도기적 성격을 면하지 못하였다. 즉, 이 기간 중에 편찬된 교과서는 헌법과 교육법은 물론 교육과정도 제정되지 않았던 시기라서 국민 교육용 교재로서의 모자람이 많았고, 교과서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중학교 사회과는 전 학년이 공민, 지리, 역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1학년은 공민 생활, 이웃 나라 생활, 이웃 나라(동양사), 2학년은 공민 생활, 먼 나라 생활, 먼 나라(서양사), 그리고 3학년은 공민 생활, 우리 나라 생활, 우리 나라(국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공리 공론이 아닌 생활의 실제에 적합한 지식과 기능을 반복 연습케 하여 응용케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2.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이 시기는 교육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는 국어와 실업 등 일부 교과만 국정으로 하고 사회과 등의 교과용 도서는 전부 김·인정으로 허가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특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특징으로 공민 영역에서는 민주 국가 사회의 공민으로서의 올바른 인간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기능과 태도,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역사 영역에서는 지도, 사진, 도표의 제작 활용 능력을, 그리고 지리 영역에서는 학습 내용을 현실 생활을 토대로 하고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히, 중학교 사회과의 검정 교과서로는 공민 24종, 국사 10종, 세계사 12종, 우리 나라 지리 13종, 그리고 다른 나라 지리 9종이 발행·활용되었다.

중학교 사회과의 내용 구성에서 전 학년이 공민, 지리, 역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수 요목기와 달리, 공민 영역은 학년별로 공동 생활, 정치 생활, 경제 생활로 되어 있던 것을 공동 생활, 국가 생활, 국제 생활로, 역사 영역에서는 동양사, 서양사, 국사로 되어 있던 것을 국사와 동·서양사로 합친 세계사로, 지리 영역은 이웃 나라, 먼 나라, 우리 나라 지리를 우리 나라 지리와 이웃 나라, 먼 나라를 합쳐 다른 나라 지리로 축소하여 3년 동안 이수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시기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특징으로 공민 영역에서는 민주 국가 사회의 공민으로서의 올바른 인간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기능과 태도,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역사 영역에서는 지도, 사진, 도표의 제작 활용 능력을, 그리고 지리 영역에서는 학습 내용을 현실 생활을 토대로 하고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

이 시기의 사회과의 경우에 중학교의 ‘민주 생활’을 제외한 사회과 모든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발행되었다. 과거에는 무제한으로 인가했던 검정

교과서의 종류와 수도 양서를 선정하고 정가를 낮춘다는 명목하에 1과목당 종수를 제한하였다. 중학교 사회과의 검정 교과서는 사회 1, 사회 2, 사회 3으로 11종 33권, 그리고 사회과부도는 9종이 발행되었다.

이 시기는 교과서의 명칭이 ‘사회 생활’ 과에서 ‘사회’로 바뀐 시기이다.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은 전과는 달리 학년별로 1학년은 지리, 2학년은 역사, 3학년은 공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학년의 역사는 처음에는 세계사와 국사의 내용이 기계적으로 합쳐진 역사로 있다가 1969년 부분 개정 때 국사, 세계사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도의 활동이 중학교 사회과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특징은 학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계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나라와 관계되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중시하였으며, 역사적인 배경을 중시하고, 최신 통계를 사용하고 도표화하는 데 힘썼다.

### 4.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이 기간의 교과서 정책은 문교부가 직접 주관하여 교과서를 편찬·발행한 시기로서, 국정, 검·인정 제도가 1종 및 2종 도서 제도로 바뀐 시기이다. 1972년의 유신 헌법의 공포로 인해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이 크게 바뀌었는데, 교과서 편찬의 대

### 문교부는 제4차 교육과정 시행에 맞추어서

1982년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종 도서의 범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2종 도서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즉, 중·고등 학교 1종 도서의 범위를 국사, 사회를 포함하여 국어, 도덕, 국민 윤리에 국한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2종으로 하였다. 그러나 제3차 교육과정기부터 시작된 사회과의 단일화 조치는 제4차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중학교의 사회는 1종이었다.

원칙으로 1교과 1책주의를 내세웠다. 특히, 국사 교육 강화책으로 검정이었던 중·고등 학교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였으며,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역시 1972년부터 1974년 사이에 단일화시켰다. 이 시기의 교과서는 개발 과정에서 1년 집필, 1년 현장 실험 및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는데, 이 때의 현장 실험은 교과서 개발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시기의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구 교육과정과 같이 사회과라는 통합 교과와 틀 아래 1학년 지리 영역, 2학년 역사 영역, 3학년 공민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국사 교육 강화책의 일환으로 2학년의 국사 부분이 교과로 독립되어 2~3학년에서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도 도의 교육은 반공·도덕 생활로 제2차 교육과정기와 같이 사회과에 배당된 시간 수 중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체제의 특징으로, 단원의 개관에서는 학습 목표와 방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학습 문제는 생각해 볼 문제와 연관지어 파악하도록 하고, 본문과 함께 사진, 지도, 통계, 도표와 가능한 한 보다 많은 최신의 자료를 싣고 있다. 또, 교과서의 여러 곳에 제시된 주요 활동에 따라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였으며, 각 주제마다 제시한 주요 어휘와 학습 정리를 보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 5.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

문교부는 제4차 교육과정 시행에 맞추어서 1982년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종 도서의 범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2종 도서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즉, 중·고등 학교 1종 도서의 범위를 국사, 사회를 포함하여 국어, 도덕, 국민 윤리에 국한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2종으로 하였다. 그러나 제3차 교육과정기부터 시작된 사회과의 단일화 조치는 제4차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중학교의 사회는 1종이었다.

이 시기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구 교과서와 달리 한층 더 통합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즉, 학년별로 1학년은 공민, 국토 지리, 2학년은 세계 지리, 세계사, 그리고 3학년은 세계사, 공민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의 중학교 사회과의 특징으로는, 먼저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학습예의 도움 글을 실었고, 교과서의 여러 곳에 주요 활동을 제시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또, 각 주제마다 학습 정리를 실어 핵심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며 공부하기에 좋도록 학습 내용을 쉽게 풀어 쓰고 있다.

### 6.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

이 시기의 중·고등 학교의 교과서는 제4차 때보다 2종 도서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시기로서, 2

종의 합격 종수는 전보다 확대되었으나 중학교의 사회과 교과서는 여전히 1종이었다. 교과서 내용 구성의 특징은 제4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는데, 1학년은 지리 영역과 세계사 영역, 2학년은 세계사 영역과 공민 영역, 3학년은 공민 영역과 지리 영역으로 학년별로 구성 영역의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의 중학교 사회과 체제상의 특징으로는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학습해야 할 주요 개념이나 사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본문 내용 옆의 여백에 제시하고 있다. 학습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학습에의 도움 글을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공부하기 좋도록 하기 위하여 용어나 내용은 각주를 달아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 7.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그 동안 지적되었던 2종 도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서 집필 기간을 늘리고 유효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심사위원의 선정과 학교 도서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등의 개선 작업을 하였다. 한편, 그 동안 국정으로 발행되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국정(1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시기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1학년과 2학년에서 지리 영역과 역사 영역을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3학년에서는 2학년 뒷부분에서 세계사 영역과 관련지어 일반 사회 영역의 내용이 일부 나오나, 일반 사회 영역은 주로 3학년에서 다루고 있다. 국사 영역은 사회과에 통합시켜 다루고 있으며, 교과서 개발과 시간을 별도로 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의 중학교 사회과의 특징은 외형적인 면에서 교과서의 크기가 커졌고,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통합을 보다 강화하였으며, 전제 체제도 크게 달라졌다.

### 8. 제7차 교육과정기(1997~ )

현행 교육과정인 이 시기의 교과서 편찬은 전과 달리 다수의 현장 교원이 교과서 편찬의 연구, 집필, 협의진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의 진행 주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연차별 검정제와 외형 체제의 획기적인 변화와 출판의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2종(검정) 도서를 대폭 늘림에 따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1종(국정)에서 2종(검정)으로 바뀌었다. 또, 이 시기에 교과서의 개념이 서책, 음반, 영상 제작물, 전자 도서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완 교재를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1교과 다 교과서 체제를 도입하였다.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1학년에서는 지리 영역 중심에 역사 영역을, 2학년에서는 역사 영역 중심에 일반 사회 영역을, 그리고 3학년에서는 일반 사회 영역 중심에 지리 관련 영역을 관련시킴으로써 매 학년마다 2개 영역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국사 영역은 제6차 교육과정기에 사회과에 포함된 이후 운영 차원에서 사회과에 통합시켜 다루되, 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별도로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전과 달리 편집, 판형, 인쇄면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 특징이 있다. 먼저, 학생들이 재미있는 교과서와 함께 자기 주도적 학습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습 자료와 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또, 수준별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주제별로 보충 및 심화 과정을 제시하였고,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학습 내용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나 CD-ROM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교육과정기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주요 특징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교육과정기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과 특징

구분	발행 제도 (중·사회)	중학교 사회 교과서명	특징 및 기타
미 군정 및 교수 요목기 (1945~1954)	검·인정	-검정(1945~1947) : 중등 사회 생활, 중등 사회 생활과 이웃 나라, 중등 국사, 중등 서양사, 동양사, 동양 역사, 서양사, 중등 서양사, 중등 조선 지리 -검정(1949~ ) : 우리 나라의 생활(검정), 이웃 나라 생활(인정), 먼 나라 생활(검정), 먼 나라 생활 부도(검정), 인류 문화의 발달(검정), 지리 통론(검정), 지도(인정), 공민(검정)	-1948년 문교부 검·인정 교과서 -학교별 독자적 교재 작성 사용 -1945~1948년 : 검·인정 혼란기, 1949~1954년 : 검·인정 안정기 -1951년에는 전서 독본 교과서 개발
제1차 교육과정기 (1954~1963)	검정	-검정 : 공민(24 종), 국사(10 종), 세계사(12 종), 우리 나라 지리(13 종), 다른 나라 지리(9 종)	-명칭 : 국정, 검정, 인정 도서
제2차 교육과정기 (1963~1973)	검정	-검정 : 사회 1, 2, 3(11 종 33 권), 사회과 부도(9 종)	-국정 : 민주 생활(1~3), 승공 통일의 길
제3차 교육과정기 (1973~1981)	단일본 →1종	-1종 : 사회 1, 2, 3(제2차 교육과정기의 검정 도서 중 단행본 지정, 10월 유신에 따른 검·인정제의 국정화)	* 국사, 도덕의 교과 독립 -명칭 : 1종, 2종 -국사(1종) -국정 교과서 권한 일부를 한국교육개발원에 부여
제4차 교육과정기 (1981~1987)	1종	-1종 : 사회 1, 2, 3(문교부 저, 대한교과서 출판)	-1종 도서 권한 일부를 한국교육개발원과 대학에 위탁 -2종 : 사회과 부도(6 종)
제5차 교육과정기 (1987~1992)	1종	-1종 : 사회 1, 2, 3(문교부 저, 대한교과서 출판)	-2종 : 사회과 부도(9 종) -1종 : 국사(상, 하)
제6차 교육과정기 (1992~1997)	1종	-1종 : 사회 1, 2, 3(교육부 저, 대한교과서 출판), 국사(국사편찬위원회 편)	* 국사와 사회과로의 복귀 -검정 : 사회과부도(11 종)
제7차 교육과정기 (1997~현재)	검정(2종) 및 국정 (1종)	-검정(2종) : 사회 1, 2, 3(동화사, 중앙교육, 지학사, 디딤돌, 금성, 고려출판, 교학사 등) -국정(1종) : 국사(국사편찬위원회 편)	-명칭 : 1종, 2종 → 국정, 검정 -검정 : 사회과 부도(11 종) -검정 업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 주관

### Ⅲ.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

지금까지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러나 특히,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은 물론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용 도서 전반에 걸쳐 그 발전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 1. 교과 교육과 교과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사회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가 교과의 성격을 중심으로 내용과 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과서 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과서 편찬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함께,  
교과서 출판 업계의 전문성과 윤리성의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장기간에 걸쳐서 전문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연구 개발한 교과서와 출판사가 우대받는  
제도와 교과서 전문 인력을 확보한 전문 출판사가 아니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출판사 시장의 경쟁 풍토의 형성이 필요하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는 학생용의 주된 자료이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과정의 정신을 어떻게 교과서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교급 별에 따른 목표와 내용에 대한 상세화 연구와 함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 교과서의 연구, 개발, 제도, 체제, 편집, 발행, 채택, 공급, 관리 및 활용 방식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교과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 교과서 연구소의 신설과 기존 연구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 2.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와 효율적인 교사용 지도서 개발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 개발과 효율적인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과서의 개념 정의가 서책 중심에서 서책과 함께 음반, 영상 제작물, 전자 도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넓어졌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 외에 컴퓨터 보조 학습 프로그램, CD-ROM, TP 자료, 평가 문항지, 워크북, 모듈 및 수준별 자료 등의 자료가 개발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학생용 교과서와 함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교사용 지도서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교사용 지도서는 지도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효과적인 현장 적용을 예상하여 기본 내용의 지도 방법, 결손 학생의 처리 방법, 평가 방법

등 현장 교사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좋은 보조 자료들이 많이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한다.

## 3.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출판 업계의 전문성 확보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 출판 업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과서 발행 출판사가 교과서 편찬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함께, 교과서 출판 업계의 전문성과 윤리성의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장기간에 걸쳐서 전문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연구 개발한 교과서와 출판사가 우대받는 제도와 교과서 전문 인력을 확보한 전문 출판사가 아니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출판사 시장의 경쟁 풍토의 형성이 필요하다. 또, 정부는 이러한 활동의 지원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실천 여부를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4. 편수를 위한 독립청 신설과 검·인정 절차의 합리화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편수 업무의 중요성 인식과 검·인정 절차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수준 높은 교과서 정책을 수립하고 교과서의 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 개발을 위한 독립청의 신설과 함께 교과별, 학교급

별로 전문성이 높은 편수관의 충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편수관들이 대학 또는 연구 기관과의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전문직으로서의 편수관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또, 교과서의 질 향상과 질 관리 측면에서 핵심이 되는 검·인정 절차와 관련하여 검정 시기와 기준, 검정위원의 선발 기준 및 검·인정 과정 등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5. 교과서 제도의 개선과 발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교과서 발행 제도의 개선과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과서 발행 제도를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검·인정에서 자유 발행제로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 정부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서 발행 정책을 교육 전문 연구 기관, 교육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출판 업계에서 자율적,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바꾸어 나가는 조치를 계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과서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개의 학년에 공용으로 활용하는 교과서 개발과 특히 초등 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므로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교과서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단기간 내에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 교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대여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IV. 결 어

지금까지 교수 요목기부터 현행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사회과 중학교 교과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터해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발전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사회과 교과서는 물론 모든 교과서가 내용과 외형 체제의 양면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특히, 21세기 현대 사회는 개방화, 정보화, 자율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교과서의 제도도 더욱 다양성과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가야 한다.

앞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사회과 교과서의 발전 및 개선 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전문 교육 연구 기관과 출판 업계 등 교과서 관련 기관과 교육과정, 교과 교육 등 교육 관련 전문가와 편집 전문가, 일선 현장 교사 등의 지속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

# 고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과 전망

글 **진재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I. 머리말

근래에 교육은 과거의 전통을 전수하는 기능도 하지만 미래를 대비한 인재 양성의 기능을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급변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각국은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은 과거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과 순발력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교육은 그 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의 능력들을 추출하여 이를 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미래 지향적 작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 교육의 토대가 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정은 치밀하고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발력이 떨어지고 시대에 뒤지는 경우도 많다. 그리하여 교육이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오랜 동안 교과서는 교육의 핵심적 자리에 항상 위치해 왔다. 얼마 전까지 교과서는 유일한 학습 도구였고, 정보의 원천이었으며, 지식의 보고였다. 비록 교과서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교과서는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의 기준으로 자리할 것

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화는 교육을 변화시키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한 치밀한 검증 장치를 두고 있다.

이 글은 고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과 교과서와 동전의 양면 관계인 사회과 교육과정의 편제 변화를 탐색하면서 고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고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한정하지 않고 교과서 발전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로 사회과를 포괄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사회과 교과서도 전체적인 교과서의 발전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1. 국가 교육과정과 사회과의 성격 변화

1948년 미국의 교육 제도를 우리 나라에 받아들이면서 처음 도입된 사회과는 그 성격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과는 다른 교과와 달리 토대로 하고 있는 역사, 지리, 일반 사회라는 세 영역의 학문 체계와 성격이 각각 달라 상호간에 애증의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회과를 구성하고 있는 세 영역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와 그 통합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통합의 논의와, 세 영역이 기반하고 있

는 학문적 정체성을 사회과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분과의 논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합과 분과의 논의는 어느 하나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황에 따라 때로는 통합의 논의가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과의 논의가 강하기도 하는 등 작용과 반작용에 의한 파동을 겪어 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과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교과이기 때문에 국가 사회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과목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윤리/도덕’ 과목이 사회과로부터

분리되었고, ‘국사과/국사’가 사회과로부터 독립되었다가 다시 편입되는 일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사회과 자체의 논리나 협의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적 입장을 반영한 결과였다는 점이 사회과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만큼 사회과는 정치 집단의 입장에 따라 집중적인 공격과 옹호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사회과 성격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국가 교육과정과 사회과의 성격 변화<sup>a)</sup>

차수	공포(고시)	교육과정 개정의 요점	사회과의 성격
	1948	○ 교수 요목기	○ 사회과(social studies) 도입
제1차	1955	○ 교과 중심 교육과정	○ 한국 사회과의 시작
제2차	1963	○ 경험 중심 교육과정 ○ 반공·도덕 수업 시수 확대	○ 사회과의 정착
제3차	1973	○ 학문 중심 교육과정 ○ 국사 독립, 도덕과 분리	○ 사회 과학과로서의 사회과
제4차	1981	○ 국민 정신 교육 강조 ○ 학습량·수준 축소 ○ 국민 학교 1, 2학년 통합 교과	○ 통합의 강화 (중학교 영역 융합형 시작)
제5차	1987	○ 국민 학교 통합 교육과정 ○ 경제 교육, 지역성 강조 (고등 학교 ‘생활 경제’ 신설)	○ 사회과의 성숙 ○ 탐구 학습, 의사 결정 강조
제6차	1992	○ 인간 중심 교육과정 ○ 국가, 지역, 학교 역할 분담 ○ 고등 학교 공통 사회 신설 ○ 환경 전문 교과 신설	○ 통합 사회과의 구축 - 국사 과목의 복귀 - ‘공통 사회’ 과목 도입
제7차	1997	○ 학생 중심 교육과정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 수준별 교육과정 -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재량 활동 신설	○ 사회과의 다양화 - 고등 학교 공통 사회 교과서 합본 통합 ○ 선택 과목 증대 : 10개 과목 ○ 중·고등 학교 교과서 검정화(국사는 국정 교과서 유지)

## 2. 고등 학교 사회과의 교육과정별 변화

고등 학교에서 사회과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각 영역의 과목별 변화가 심하였다. ‘윤리/도덕’ 과목은 제3차 교육과정부터 사회과로부터 떨어져 나가 현재까지 독립된 교과를 유지하고 있다. ‘국사’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때로는 사회과의 일부로, 때로는 독립된 교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 고등 학교 ‘국사’는 전근대를 다루고, 근·현대 부분은 심화 선택 과목으로 편제하여 두 과목이 한국사 전체를 시대별로 나누어 담당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전근대사만 학습하고 근·현대사를 학습하지 못한 채 고등 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이과 계통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는 일반계 고등 학교 학생과 전문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실업계 학생들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세계사는 그 과목명을 항상 유지하는 편이었으나, 때로는 필수 과목으로, 때로는 선택 과목으로 편제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지리 영역은 대체적으로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라는 두 가지 큰 흐름을 유지하였다. 제7차에 와서 경제 지리라는 과목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일반 사회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소영역간의 통합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분과의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제6차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었고, 제7차에 와서는 ‘정치’에서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독립되는 분과의 경향을 보였다.

고등 학교 사회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과 각 영역별 분과를 유지하면서 영역 내에서도 과목별 분과의 경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부터 통합의 원리에 의해 등장한 고등 학교 1학년의 ‘사회’는 과목의 설정 취지와 달리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분과의 원리에 의해 구성된 단원을 하나의 교과서로 편집해 놓은 형태를 취하였다. 이것은 현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통합이 이론처럼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교육과정별 고등 학교 사회과의 편제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고등 학교 사회과의 교육과정별 변화<sup>\*)</sup>

교육과정 교과목	교수 요목	제 1차 교육과정기 (1955~1963)	제 2차 교육과정기 (1963~1973)	제 3차 교육과정기 (1973~1981)	제 4차 교육과정기 (1982~1987)	제 5차 교육과정기 (1988~1995)	제 6차 교육과정기 (1996~2001)	제 7차 교육과정기 (2002~ )
국사	사회 생활 과	국사*	국사*	국사과*	국사과*	국사과*	국사*	국사*
세계사		세계사	세계사*	세계사	세계사*	세계사*	세계사	한국 근·현대사
지리		지리	지리 I * 지리 II	국토 지리 인문 지리	지리 I * 지리 II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세계 지리 공통 사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일반 사회		일반 사회*	일반 사회* 정치·경제	정치·경제* 사회·문화	사회 I * 지리 II	정치·경제* 사회·문화	(일반 사회, 한국 지리) 정치·경제 사회·문화	사회* (일반 사회+지리) 인간 사회와 환경
윤리		도덕*	국민 윤리*	국민 윤리*	국민 윤리*	국민 윤리*	윤리*	법과 사회 정치·경제 사회·문화
								도덕*

(\*표는 필수 과목 표시)



### 3. 고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교육과정별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고등 학교 사회과의 변화와 더불어 교과서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리나라 고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 편찬은 약간의 굴곡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국정 교과서가 검정의 교과서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국정 교과서로 국사 한 과목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검정 교과서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고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교육과정별 변화

교육과정	1 종(국정) 교과서	2 종(검정) 교과서	비 고
제1차		국사, 일반 사회, 지리, 세계사	사회과 전과목을 2종으로 함.
제2차	국사	일반 사회, 정치·경제, 세계사, 지리 I·II	
제3차	국사 <sup>3)</sup> , 세계사, 국토 지리, 인문 지리, 정치·경제, 사회·문화	사회과 부도	사회과 전과목 국정으로 전환 국사와 윤리의 독립 교과화
제4차	국사, 사회 I·II	지리 I·II, 세계사, 사회과 부도	
제5차	국사, 정치·경제, 사회·문화	한국 지리, 지리 부도, 세계 지리, 세계사, 역사 부도	
제6차	국사, 정치, 경제	공통 사회,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 지리, 역사 부도, 지리 부도	국사의 사회과 편제
제7차	국사	사회, 지리 부도, 세계사, 역사 부도, 사회·문화, 세계 지리, 정치, 경제, 한국 근·현대사, 인간 사회와 환경, 한국 지리, 경제 지리, 법과 사회	

### 4. 고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발전 방향

교과서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와 그러한 사회에서 어떠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과 밀접히 연결된다. 즉, 교과서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의 상시 수정·보완과 상시 검정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 나라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개정에 맞추어

전체적, 그리고 획일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그리하여 교과서의 독과점적 지위는 한 번 심의·검정을 통과하면 다음 교육과정 개정시까지 유지되었다. 우선적으로 교과서의 상시 수정·보완 체제를 제도화하여 기존 교과서에 대한 수정·검토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교과서를 정비하는 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 상시 검정 체제를 도입하여 필요한 교과서를 수시로 개발·공급할 뿐만 아니라,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라도 수정과 보완에 대한 수시 재검정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교과서를 퇴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감독으로 수정·보완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쟁력 있는 교과서를 개발·공급하도록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교육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개별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던 교과서가 아니라  
학습 방법으로서의 교수·학습을 안내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교과서가 요구된다.

록 자극·격려하고 경쟁력이 없는 교과서를 퇴출하  
는 상시 수정·보완 및 검정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시대 변화의 조류와 이에 따른 교육적 요  
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산업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은 획일성, 동일성이  
라는 전제하에 중앙 통제적 커리큘럼과 완전 학습  
이라는 개념을 중시하였다. 반면에 정보화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은 개개 학습자들의 요구와 특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교사 중심의 학습에서 학습  
자 중심의 학습으로의 전환, 학습자 선택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sup>4)</sup>.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등장한 대표적  
인 이론이 구성주의였다. 교육에서의 구성주의는  
정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성, 유연성,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지닌 학습자들을  
기르기 위해 지금까지 주체가 아닌 객체의 위치에 속  
해 왔던 학습자들에게 많은 자율성과 선택권을 주  
며, 그들의 목소리와 요구, 흥미와 관심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  
하는 학습 이론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구성  
주의 원리는 제7차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도입되  
었다.

구성주의 이론과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  
적 요구는 곧 교과서 서술 체제의 변화를 야기한  
다. 새로운 시대 조류를 반영하여 교과서에도 학문

체계를 이루고 있는 지식의 정선된 나열식 서술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해 나  
가는 과정에서 지식을 터득하게 되는 활동 중심의  
교과서 서술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가이드북 역할을  
해야 한다.

교과서에 모든 지식을 담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담기보다는 필요한 지  
식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  
과서가 그것이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교육은 다  
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개별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  
하던 교과서가 아니라 학습 방법으로서의 교수·학  
습을 안내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교과서가 요  
구된다. 즉, 교과서는 이제 충실한 교수·학습의 가  
이드북이 되어야 한다.

넷째, 현대 문명과 기술의 집적으로서의 교과서  
가 제작되어야 한다.

시대의 변화는 교과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교과  
서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예견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교과서

로 학습하는 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즉, 교과서의 체제도 인터넷이나 무선 통신의 발달과 같은 현대 문명의 변화를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극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전자 교과서가 일레가 될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현대 문명과 기술을 순발력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II. 맺음말

그 동안 교과서는 학교 교육의 수준과 질을 담보하는 기준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전국적인 단위로 공급되는 교과서는 일선 학교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최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다. 그러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21세기의 지식 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교육에 대한 요구는 최저 수준이 아니라 최고 수준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를 존중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하였다.

교과서의 지위는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과서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지식의 기준이고 지식의 정석이라는 교과서의 지위는 이제 학습의 가이드 북이라는 교과서의 지위로 바뀌어야 한다. 근래에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촉발된 관심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반영이며, 이러한 관심은 새로운 사회에 대응하는 교과서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연

- 1) 김정호 외(2005).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C 2005-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 16.
- 2) 이 표는 '유승렬(1996). 해방 후 교육과정 변천과 역사 교과서의 위치. 역사교육 60 집. p. 17의 <표 7>'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3) 국사 과목은 제3차~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사회과로부터 독립되어 독립 교과로 편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표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사회과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윤리/도덕 과목은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기에만 사회과에 편제되었고, 제3차 교육과정기부터는 독립 교과가 되었다. 이 표에서는 윤리/도덕을 제외하였다.
- 4) 강인애(1997). 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 p. 157.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

# 초등 학교 사회과 지역 교과서의 변천과 전망

글 김만곤(용인 성북초등학교 교장)



## I. 지역 교과서의 변천 개관

### 1. '지역 단위'와 '지역 교과서'라는 명칭

초등 학교 교과서 편찬사에서 '지역 교과서'라는 용어는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에 처음으로 붙여졌고, 교육과정은 단일한 것이어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이 시·도별로 서로 다르게 편찬되었던 제5차 교육과정기의 4학년 1학기 '사회', '사회과 탐구', '교사용 지도서'의 제1단원은 교육과정의 내용(우리 시·도의 생활)에 따라 '지역 단위'로 불렸다. 물론, 제6, 7차 교육과정에서도 4학년 1학기에 학습하는 단원들(우리 시·도의 모습과 내력, 우리 시·도 사람들의 생활)은 여전히 '지역 단위'로 불린다.

제6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교육과정의 편성권을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분담하게 한 것이고,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나름대로

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 즉, 이제 학교 교육은 교과서 중심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교원들은 교육 목표와 내용의 결정

에 있어 지역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이에 따른 교과서 편찬이 시작되자 '우리들은 1학년'도 '지역 교과서'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용어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데 매력이나 편리함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만, 아직도 이 교과서의 정체성, 필요성, 구실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 2. 지역 교과서의 형태와 수업의 변화

지역 단원이 나타나고 지역 교과서가 편찬된 제5, 6, 7차 교육과정기의 초등 학교 사회과 지역 교과서의 성격과 형태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회과 지역 교과서의 성격과 형태 변화

학년	도서명	제5차 교육과정기	제6차 교육과정기	제7차 교육과정기
3	사회 3-1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시·도에서 시·군별로 인정 도서를 개발하여 1종 도서와 함께 사용함.</li> <li>- '우리 교장'을 '우리 ○○'으로 지명만 바꾼 정도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시·군·구별 인정 도서 발행이 제5차에 비해 크게 늘어나 거의 일반화함.</li> <li>지역 교육청보다는 시·도 교육청에 의해 개발된 것이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6차 교육과정기처럼 3학년 1·2학기 인정 교과서, 교사용 지도 자료, 학습지, 초·중등 공용 장학 자료 등 다양한 지역화 자료가 개발되고 있음.</li> </ul>

학년	도서명	제5차 교육과정기	제6차 교육과정기	제7차 교육과정기
4	사회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원을 시·도별로 각각 다르게 편집(1단원만 서로 다른 15책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4-1’이 전국 공용으로 개발됨(1책).</li> <li>• ‘사회’ 교과서가 시·도별 ‘사회과 탐구’의 보조 교과서 역할을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 교육과정기처럼 전국 공용의 교과서로 개발됨(1책).</li> <li>• 주 교과서 역할 회복</li> </ul>
	사회과 탐구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처럼 각 1단원을 지역 단원으로 편집(15책 개발)</li> <li>• 시·도별 집필자들이 1종 도서 연구 개발 위원회에 소속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지역 교과서로 개발(16책)</li> <li>• 1종 도서로 개발(저작권 : 교육부)</li> <li>• 주 교과서로 사용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인정 도서로 개발됨(16책).</li> <li>• 보조 교과서의 역할을 하게 됨.</li> </ul>
	교사용 지도서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사회과 탐구’처럼 1단원을 지역 단원으로 편집(1단원만 다른 15책을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공용인 교사용 지도서(1책) 외에 시·도별 인정 도서로서의 지도서도 개발(16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공용 지도서를 개발(1책)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별 지역화 자료 개발을 권장</li> </ul>

지역 교과서의 이러한 변화에 따른 사회과 4학년 1학기 수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5차 교육과정기는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지역화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요구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지금 이야기하면 새삼스러운 면이 있지만, 제4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배울 때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 그러므로 당연히 - 예를 들어, 행정 구역은 충청 북도, 산업은 전라 남도, 관광은 강원도를 사례로 배우고 시험 치던 일을 생각하면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심지어, 교과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네 시·도의 행정 구역, 산업, 인구, 관광을 가르치고 배우는 당연한 수업을 하면 참 희한하다는 말을 듣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1종 지역 교과서와 지역별 인정 도서인 교사용 지도서에 의해 수업이 진행되고, ‘사회’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보조 자료의 구실을 하게 되었으며, 처음 개발된 지역 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지나치게 커서 내용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았던 것이 특징이었다. 이어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다시 1종(국정) ‘사

회’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주 자료로 하여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정 도서로 편찬된 지역 교과서(사회과 탐구)의 내용과 역할의 변화가 지역화의 수준과 발전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었다.

## II. 지역 교과서의 편찬 과정

### 1. 제5차 교육과정기의 지역 단위

제5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1987년 6월 30일에 고시되었고, 1, 2, 3학년에게는 1989년 3월 1일, 4, 5, 6학년에게는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이 교육과정에 의한 사회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을 이화여자대학교 1종 도서 연구 개발 위원회(책임 연구자 강우철, 담당관 김용만)에 위탁하였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1988년에 4학년 1학기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지역 단원을 각 시·도 대표들을 선정하여 집필하게 하고, 그 담당자들을 몇 차례 서울(한강호텔과 당시 노량진에 있었던 국정교과서주식회사)에 불러 연수를 시키기도 했다. 시·도 담당자들은 교육과정이 교육부에서 고시되듯 교과서는 본래 ‘교육

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해 온 터였으므로, 일련의 이 연수 과정을 신기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에서 매우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서로 좋은 원고를 쓰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하여 각 시·도에서도 드디어 교과서 개발에 눈을 뜨게 되었고, 4~6학년의 경우에는 1990년 3월 1일의 ‘사회’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편찬에 이어 1991년 3월 1일에는 부교재로서 ‘사회과 탐구’도 편찬되었는데, 이에 따라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 1단원(지역 단원)을 또 지역에서 집필하게 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고 깊은 애정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교과서를 읽고 쓰고 외워야 하는 ‘경전(經典)’이 아니라, 기본적인 학습 자료로 규정하면서 ‘1교과 다(多) 교과서’ 원칙에 따라 편찬된 부교재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사회과의 탐구 학습, 문제 해결 학습에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측에서는 매우 좋다는 편이었고, 사회과는 누가 무슨 주장을 해도 핵심 내용이 담겨진 교과서를 읽고 쓰고 외워야 제대로 된 공부를 시킬 수 있다고 보는 측에서는 ‘사회과 탐구’ 교과서가 학습량만 늘어

나게 했으므로 당장 이 교과서를 없애고 ‘사회’ 교과서도 그 부피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제6차 교육과정기의 지역 교과서

지역 교과서의 편찬은 우리 나라 편수사에서 중요한 변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제6차 교육과정 때 양성된 각 시·도의 인력을 활용하여 1종(국정) 도서이던 지역 교과서(사회과 탐구)를 인정 도서로 바꿀 수 있었으므로 제6차 교육과정기의 지역 교과서 편찬 과정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제6차 교육과정은 제5차 교육과정에 의한 4, 5, 6학년 ‘사회과 탐구’ 교과서가 처음으로 편찬되어 나온 이듬해인 1992년 9월 30일에 고시되었는데, 이 교육과정의 고시에 따른 4학년 1학기 교과용 도서 편찬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전국 단일본의 ‘사회’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체제를 바꾸어 각 1단원만은 시·도별로 다르게 편집하였는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1학기 전체가 지역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사회과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다양한 방안이 고려된 것이다.

**[표 2] 국민 학교 사회과(4학년 1학기) 지역 교과서 개발(안)**

안	주요 내용	기대되는 성과	문제점
1	• 교과서, 지도서, 사회과 탐구 → 단일본 개발 〈계 3책〉	• 시·도 자체 인정 도서 개발 유도	• 시·도 인정 도서 개발 여부에 따라 수업 상황이 크게 달라짐. • 시·도 예산 편성 문제
2	• 교과서, 지도서 → 단일본 개발 (2책) • 사회과 탐구 → 시도별 개발(15책) 〈계 17책〉	• 시·도 자체 인정 도서 개발 유도 • 지역의 특수성, 지역화 자료 보완 (교과서로 대체 사용 유도)	• 시·도 인정 도서 개발 여부에 따라 수업 상황이 크게 달라짐. • 시·도 예산 편성 문제 • 중앙·지역 공동 개발팀 구성
3	• 교과서, 지도서 → 시·도별 개발 (30책) • 사회과 탐구 → 단일본 개발(1책) 〈계 31책〉	• 교육과정 정신에 맞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 가능 • 사회과 탐구 : 연차 계획에 의거 지역 인정 도서로 개발 유도 가능	• 인력과 장기간의 연수 필요 • 심의 : 240일 소요(30책×2회×4일)



안	주요 내용	기대되는 성과	문제점
4	• 교과서, 지도서, 사회과 탐구 → 시·도별 개발 <계 45책>	• 교육과정의 정신에 맞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 가능 • 교과서 개발 능력 향상	• 인력과 장기간의 연수 필요 • 심의 : 360 일 소요(45책 × 2회 × 4일) • 예산 소요 : 약 5억 원
5	• 교과서, 지도서 → 시·도별 개발 (30책) • 사회과 탐구 → 1년 순연 개발 (1995 시작) <계 1994-30책, 1995-15책>	• 교육과정의 정신에 맞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 가능 • 교과서 개발 능력 향상 • 교과서, 지도서 개발팀을 사회과 탐구 개발에 활용	• 인력과 장기간의 연수 필요 • 심의 : 240 일 소요(30책 × 2회 × 4일) • 지도서는 1995년에 개발 (사회과 탐구 내용 삽입 가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예산도 따라야 하겠지만, 1993년 8월, 당시 교육부 편수 관리관실에서는 인력 동원을 가장 큰 조건으로 보았다.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르면 ‘사회’, ‘사회과 탐구’와 교사용 지도서를 각 시·도별로 3책씩, 전체적으로는 45책을 개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것은 인력 동원에 우리가 따르므로 결국 ‘사회’ 1책, ‘사회과 탐구’ 15책, 교사용 지도서 1책 등 17책을 모두 국정 도서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시·도별 ‘사회과 탐구’가 주

교과서 구실을 할 경우, ‘사회’ 교과서가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지역 교과서 개발의 당위성이 강할수록 교육과정에 따라 전국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사회과에서 중시하는 기능 학습에 중점을 두는 전국 공통의 교과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사용 지도서는 지도법 중심으로 개발함으로써 사회과 교육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제5차 교육과정기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사회과 4학년 1학기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의 지역 단원의 변화

구 분		제 5 차 교육과정(1990~1995)	제 6 차 교육과정(1996~2000)
교육과정의 내용		1. 우리 시·도의 생활	1. 우리 시·도의 모습과 내력 2. 우리 시·도 사람들의 생활
교과서 구성	사 회	• 4개 단원 중 1개 단원이 시·도별 지역 단원임. 1. 우리 ○○(서울)의 생활	• 전국 동일 교과서 1. 우리 시·도의 모습과 내력 2. 우리 시·도 사람들의 생활 3. 발전하는 우리 시·도
	사회과 탐구	• ‘사회’ 교과서와 같은 체제(1개 단원이 지역 단원)	• 1학기 교과서 전체가 시·도별로 다름(3~4개 단원).
교사용 지도서		• 교과서와 같은 체제(1개 단원이 지역 단원)	• 전국 단일본(지도법 중심으로 구성)
학습 기간		약 1개월	1학기 전체
교과용 도서의 활용		• ‘사회’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수업하고, ‘사회과 탐구’는 보조 자료로 활용	• ‘사회과 탐구’를 학습 내용으로 하고, ‘사회’ 교과서는 탐구 방법을 익히는 교과서로 활용
개발 기관		• 이화여자대학교(강우철) -1단원만 시·도별 집필	• ‘사회’, 교사용 지도서 : KEDI • ‘사회과 탐구’ : 각 시·도 집필

지역 교과서는 교육과정·교과서의 체제상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며,  
이 교과서의 변화는 다른 학년 교과서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제 5, 6, 7차 교육과정을 거치며 이 교과서가 변화를 거듭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중양 집권적’ 형태를 띤 우리 나라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가능한 변화라는 데 제한점이 있다.

그리하여 1993년 11월 15일에 지역 교과서(사회과 탐구) 개발 계획이 시·도 교육청에 통보되어 그 해 12월 말에 시·도별 1종 도서 연구 개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94년 2월부터 1996년 3월까지 약 2년간 12회에 걸친 연수와 작업을 거쳐 각 시·도별 지역 교과서가 탄생되었으며, 각 지역의 사례들이 반영된 시·도 교육청 인정 도서로서의 지도서 개발도 권장되었다.

### 3. 제7차 교육과정기의 지역 교과서

제7차 교육과정기의 지역 교과서는 ‘사회’ 4-1은 제6차 교육과정기처럼 전국 공용으로 개발되 다시 주 교과서의 역할을 회복하였으며, 지역 교과서인 ‘사회과 탐구’ 4-1은 시·도별 인정 도서로 16책이 개발되어 보조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전국 공용의 교사용 지도서는 국정으로

개발되었으며, 시·도별 지역화 자료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 Ⅲ. 지역 교과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

### 1. 체제의 변화에 대한 기대

지역 교과서는 교육과정·교과서의 체제상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며, 이 교과서의 변화는 다른 학년 교과서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제 5, 6, 7차 교육과정을 거치며 이 교과서가 변화를 거듭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중양 집권적’ 형태를 띤 우리 나라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가능한 변화라는 데 제한점이 있다. 이 교과서의 체제 변화에 대한 구상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차기 교육과정에서의 지역 교과서에 대한 구상(예)

구 분	1안	2안	3안
사 회 4-1	국(검)정 1책	인정 16책	인정 16책
사회과 탐구 4-1	인정 16책	인정 16책	자유 발행 도서 채택
교사용 지도서 4-1	국(검)정 1책, 인정 16책	인정 16책	인정 16책
특 징	대체로 현행 체제 유지	4-1 전체 시·도 위임	시·도에 위임하되 자유 발행제 부분 도입


예시한 안들을 살펴보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발전시키는 방안은 안정적인기는 하지만 다른 교과서의 변화와 발전을 유도한다는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국정인 ‘사회’와 교사용 지도서까지 시·도에 위임하여 인정화하는 방안은 매우 안정적인 발전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현재 국정인 ‘사회’와 교사용 지도서를 인정화하는 한편 현재 인정 도서인 ‘사회와 탐구’는 자료집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 도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현재 각 지역에 보급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있다.

## 2. 내용의 변화에 대한 기대

교과서는 꼭 필요한 지식의 전수와 지적 발달을 자극, 촉구해 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오래 전부터의 인식에 의해 ‘교과서는 여러 가지 학습 자료 중의 하나’라는 인식의 확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사회과 교재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현재 각 시·도의 지역 교과서는 특히 내용 중심의 전개에 치우쳐 있다. 그것은 교재 내용에 관련된 각 기관·단체에서 발달 단계에 맞지도 않는 터무니없는 내용까지 교재에 실어야 한다는 압력과 주장을 집요하게 펼치고 있으며, 교과서를 그 역할이나 성격에 의해 평가하기보다는 교과서의 내용은 오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는 교과서관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빠졌는가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뿌리가 매우 깊은 것으로, 교과서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인식이 아직도 ‘아무리 그래도 교과서는 지식의 원천’이라는 절대적 권위 부여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교과서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 탐구를 해 나가는 데 필요한 학습 과제와 흥미 유발

자료, 학습 과정을 돕는 자료, 자학 자습의 자료 같은 것들을 실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장차 수많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그러한 현상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며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나가는 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6차 교육과정기의 지역 교과서가 전통적인 교과서 내용 전개 체제를 탈피하고 역사 기록, 전설·설화, 설명, 논설, 편지, 일기, 그림, 사진, 만화, 도해, 지도, 통계와 도표, 연표, 신문 기사, 활동지, 토의 자료, 연습 문제, 게임, 퀴즈, 퍼즐 등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요약하면 내용면에서는 ‘개념 제시형’에서 ‘사례 제시형’으로, 형태면에서는 ‘주요 사실 배열형’에서 ‘학습 활동 유도형’ 또는 ‘문제 해결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역 교과서는 이러한 면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교과서는 ‘성전(聖典)’의 위치를 탈피하고 학습 자료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면서도, 근래에 이르러 비로소 ‘교과서 위주의 또는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학습을 위한 교과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는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목표와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방향 설정을 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과서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

# 미국의 교과서 채택 제도

## - 캘리포니아 주 사회과 교과서 채택을 중심으로 -

글 노희방(주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 원장)

글 조은미(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수)



**학** 교 교육에서 교과서의 활용도나 교육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교과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교과서는 이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쳐 교과서를 개발하고, 특히 검정 교과서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한다. 미국의 경우도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sup>1)</sup> 교과서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과서 채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교과서 채택 제도는 'Textbook Adoption'으로 통용된다<sup>2)</sup>. 그 기본 방침은 주 정부가 제시한 교과서 개발 지침에 따라 민간 업자가 교과서를 개발하고, 이를 주 정부 주관으로 심의하여 채택된 교과서를 초·중등 공립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를 포함한 21개 주에서 교과서 채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sup>3)</sup>, 각 주에서 실시하는 교과서 채택 제도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나 채택 과정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 방침은 거의 비슷하다<sup>4)</sup>.

이 글에서는 미국의 교과서 채택 제도의 면모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에서 교과서 수요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sup>5)</sup>를 사례로 최근에 실시한 사회과 교과서의 채택 기준과 절차 등을 알아보고, 사회과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 I. 교과서 채택을 위한 평가 기준

캘리포니아 주 교육 위원회(The State Board of Education)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곳에서 캘리포니아 전체의 교육을 총괄하고 교육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한다. 이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의 예로 공립 초·중등 학교 핵심 과목의 교육 내용 기준 채택, 교재 채택, 주에서 주관하는 평가에 관련된 정책 수립 등이 있다. 그리하여 이 위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하여 공립 학교로 하여금 이들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회과 교재 개발을 위한 준거는

주 교육 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회과 내용 기준 (History-Social Science Content Standards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 프레임워크 (History-Social Science Framework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sup>6)</sup> 및 평가 기준 (Criteria for Evaluating Instructional Materials in History-Social Science : Kindergarten through Grade Eight)이다. 1998년에 채택된 사회과 내용 기준은 K~12학년 까지 학년별로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사회과의 핵

심 지식과 기능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2001년에 발표된 프레임워크는 내용 기준과 관련하여 사회 과 영역별 학습 목표와 지도 지침을 제시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K~8학년까지의 교 재만 채택하고,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9~12학년 까지의 교재는 지역 교육청에서 채택한다. 다음 표는 K~8학년의 사회과 교재 채택을 위하여 캘 리포니아 주 교육국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을 요약 한 것이다<sup>7)</sup>.

K~8학년 사회과 교재 채택을 위한 평가 기준

평가 영역	주요 평가 항목
1. 사회과 내용 기준과 의 일치성	내용 기준과의 일치, 프레임워크와의 일치, 정확한 문법과 철자 사용, 정확하고 자세 하며 다양한 측면의 내용 제시, 학생 수준에 적절한 원자료 제공, 종교적 편향성 배제, 민주주의 실현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을 많이 제시, 교재 내용에 대한 저 자들의 책무성 등
2. 내용 조직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내용 조직, 내용 기준과 프레임워크에 제시된 필수 지 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용 조직,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설명·표·부록·개념 풀이·내용 요약 제시, 평가 안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등
3. 평가	내용 기준에 제시된 지식, 기능, 분석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 제시, 학생들 의 실력이 향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평가 도구 제시, 선다형·단답형·논술·구술을 위한 평가 도구 제시 등
4. 일반적인 접근	모든 학생들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개발(시각 장애자나 청각 장애자들을 위하여 전자 형태로 제공), 지진아·진도가 빠른 학생·특수 교육 대상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학생들 이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 읽기·쓰기·듣기·말하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도록 제작, 편집시 각 내용에 대한 제목·각 단원 도입글·요약글·결론 제시, 적 절한 활자체 사용 등
5. 교수 지도 계획과 지원	내용 기준에서 요구하는 학습 내용과 기능을 배울 수 있는 방법 제시, 교사가 학습 계 획을 세울 때 따를 수 있는 구체적 지침 제시,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교재의 서로 관련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번호 매김, 교사용 교재에는 가르칠 내용·방법·시기를 제시, 복사시 토너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검정색 면을 최소화 등

※ 자료 출처 : Criteria for Evaluating Instructional Materials in History-Social Science : Kindergarten through Grade Eight,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03.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가 기준은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1영역에 25개, 2영역에 11개, 3영역에 7개, 4영역에 10개, 5영역에 23개의 평가 항목을 9쪽에 걸쳐 길고 자세하게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교재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1영역의 25개 항목은 모두 지켜야 하며, 다른 영역의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교재 채택시 사용하는 이 평가 기준은 우리 나라 검정 교과서의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정 기준을 함께 엮어 놓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다.

## Ⅱ. 교과서 채택 절차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회, 과학, 수학, 영어를 포함한 8개 교과목의 교과서에 대하여 6~8년을 주기로 채택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 표는 6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사회, 과학, 수학, 영어 관련 교과서의 채택 일정을 제시한 것이다<sup>8)</sup>. 표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K~8학년의 교과서를 과목별로 연차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6년 채택 주기에 의하여 채택된 교과서 적용 기간도 6년이 된다.

주요 교과목의 교과서 채택 일정, 2000~2012

교과목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History-Social Science		F		c		A		←		F		A	→
Science	A		F		c		A				F		A
Mathematics		A				Fc		A				F	
Reading/Language Art/ELD			A				Fc		A				F

A : Primary Adoption

c : Evaluation Criteria

F : Framework

ELD :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 자료 출처 : <http://www.cde.ca.gov/ci/cr/cf/documents/fwadoptschedule.doc>

사회과의 경우 2003년에 사회과 교재를 평가할 기준을 발표하였고, 각 출판사들은 이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사회과 교재를 집필하였다. 2004년에는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사회과 교사, 교수,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교재를 심의할 자문 위원회와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문 위원회는 교사를 중심으로 60명을 선발하였고, 심의 위원회는 교수를 중심으로 11명을 선발하였는데, 이들 명단은 교육국 웹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이들 위원회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교재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주 교육 위원회 내에 있는 교육과정 위원회에 보냈다. 2005년 가을에는 공청회와 문서를 통해 사회과

교재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캘리포니아 전역에 학습 교재 전시장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에게 사회과 교재를 공개하였다. 주 교육 위원회는 2005년 11월 9일 채택 심의 결과에 따라 채택된 교과서의 목록과 유효 기간 및 채택되지 않은 교과서의 목록을 고시하고, 공청회와 전시회를 통하여 수렴된 내용을 각 출판사에 전달하여 수정토록 하였다.

주 교육국 차원에서 한 번 교재를 채택할 때 소요되는 기간은 평가 기준의 발표부터 수정·보완이 끝날 때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캘리포니아 교육감의

명의로 작성한 공식 문서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또, 이러한 과정을 모두 캘리포니아 교육국 웹 사  
이트에 탑재하여 원하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표는 2003년부터 2006년까  
지 이루어진 사회과 교재 채택 일정과 절차를 제시  
한 것이다.

2005년 채택 사회과 교재 추진 일정

일자	주요 내용
2003. 1. 8.	주 교육 위원회에서 사회과 교재 채택을 위한 평가 기준 채택, 발표(채택 심의 30 개 월 이전에 실시하여야 함.)
2003. 5. 16.	출판 업자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 설명회 개최
2003. 9. 19.	교육과정 위원회 채택 심의 일정표 확정
2004. 2.~9. 15.	사회과 교재 채택 자문 위원회(Instructional Materials Advisory Panel, IMAP) 와 심의 위원회(Content Review Panel, CRP) 위원 선발
2004. 11. 9~10.	교육 위원회에서 IMAP와 CRP 위원 위촉
2004. 11. 15.	사회과 교재 출원사 회의 소집 공고
2005. 12. 22.	교재 출원사 회의 참가 신청 접수 마감
2005. 1. 11.	교재 출원사 대표 회의
2005. 3. 1.	출판을 위한 기술적 요건, 출판사 점검표, 교재 설명서를 포함한 출판사의 제안서를 주 교육국에 제출
2005. 4. 5~8.	IMAP와 CRP 위원 연수 및 출판사 발표회
2005. 4. 21.	심의본 제출 마감
2005. 6. 15.	주 교육국에 운송비를 포함한 교재 가격 견적서 제출 마감
2005. 6. 22~24.	법적, 사회적 적정성 검토 CRP와 IMAP 위원의 법적, 사회적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 제출 마감
2005. 7. 8.	출판사에게 사회적으로 편향적 내용 수록 부분 통지서 배부
2005. 11~14.	CRP와 IMAP의 교재 심의
2005. 8. 8.	주 교육국에 편향적 내용 수정 결과 제출 마감
2005. 9. 29~30.	사회과 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 주관 공청회
2005. 10.	30 일간의 교재 전시회 및 일반인 의견 수렴
2005. 11. 9~10.	교육과정 위원회 주 교육 위원회에 추천서 제출 주 교육 위원회 주관 공청회, 채택 교재 발표
2005. 12.	채택된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채택 후(post adoption) 설명회
2006. 1.	캘리포니아 웹 사이트에 탑재하기 위하여 교육 위원회의 보고서 마무리
2006. 1. 31.	교육 위원회에서 수정 요구 내용을 반영한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제출
2006. 2.	지역 교육청에 가격표와 주문서 배부

※ 자료 출처 : <http://www.cde.ca.gov/ci/hs/im/hssadoptsigevents.asp>

.....  
 주 교육 위원회에서 채택한 여러 교재 중에서  
 단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역 교육청에 주어져 있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주 교육 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회과 교재 중에서  
 해당 지역 학교에서 사용할 교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팀을 구성한다.  
 .....

교재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종종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힌두교 지도자들은 6학년 역사 교과서에 실린 힌두교 관련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논란을 벌이며 신속하게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채택된 6학년용 역사 교과서에 6000년 역사의 힌두교가 원숭이와 코끼리 신들을 숭배하고 엄격한 신분 차별 제도가 있으며,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로 잘못 기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주 교육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공개 청문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한 후 일부 내용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sup>9)</sup>.

### Ⅲ. 교과서 선정

캘리포니아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60422(a))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는 2005년 11월 주 교육 위원회가 채택한 K~8학년 사회과 교재를 2007학년도부터 사용하여야 한다. 주 교육 위원회에서 채택한 여러 교재 중에서 단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역 교육청에 주어져 있다<sup>10)</sup>.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주 교육 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회과 교재 중에서 해당 지역 학교에서 사용할 교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팀을 구성한다. 이 팀은 각 학년별 교사들, 경험이 많은 교사와 신규 교사

들,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대표할 수 있는 교육자들, 특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기술과와 도서관 담당자들, 교육청에서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맡고 있는 행정가들, 사회과 전공 교수들, 학부모, 중·고등 학교 학생, 그리고 다민족·인종·언어 문제에 관여하는 지역 주민 대표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사회과를 직접 가르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다. 이 팀의 업무는 해당 교육청에 속한 학생들의 특성과 필요성에 가장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이다.

교재 선정 과정의 예를 들면, 북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샌완 통합 교육청에서는 주 교육 위원회에서 채택한 초등 학교 학생용 사회과 교과서 4세트 중 1세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교재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2006년 3월 말경부터 교재를 심의하여 4월 말경에 2세트를 선정한 다음, 이들을 몇몇 실험 학교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1년 동안 사용하도록 한 후에 2007년 2월까지 최종적으로 1세트의 교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교육청에서 1세트의 교재를 선정하면 해당 교육청에 속한 모든 학교에서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학교가 원한다면 교육청에서 선정한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교재 지원금을



우리 나라에서 국가별로 교과서 편찬 제도를 분류할 때,  
흔히 미국은 교과서 개발은 민간이 자유롭게 하고  
전정시에만 정부가 관여하는 인정제를 실시하는 나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교과서 수요가 많은 대부분의 주에서 교과서 채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받을 수 없으므로 학교 예산으로 교재를 구입하여야 한다<sup>11)</sup>.

#### IV. 사회과 교과서의 문제점

캘리포니아는 넓고 학교에 따라 생활 수준과 인종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교과서를 가지고 지역 교육청 전체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또, 공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26%가 넘는 학생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맞추어 개발된 사회과 내용과 학습량을 소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sup>12)</sup>.

특히, 2004년 12월에 제정된 No Child Left Behind라는 미 연방 교육법은 학습 장애자를 비롯한 모든 장애자들이 일반 교육과정에 의거한 학습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학습 발달 상태를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비교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교사들에게 사회과 교육 내용 기준을 학습 지도안에 반영하여 지도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도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용이 쉽고 가르칠 양을 적게 조절한 교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특수 교육 교사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것은 사회과 교과서가 해설 위주이고 학생들이 교과서 안에 있는 용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2005년도 사회과 교재 채택 평가 기준에는 장애자들을 위하여 교재를 전산화하거나, 녹음 테이프 및 기타 다양한 보완 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 학자인 레이비치(Diane Ravitch)는 미국의 고등 학교에서 사용되는 6권의 미국사와 6권의 세계사 교과서를 분석한 후에 많은 교과서들이 호화찬란한 색깔의 삽화와 그래프들로 겉은 그럴듯한데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깊이가 없고 두껍기만하다고 비판하였다. 또, 모든 출판 업자들이 어느 누구를 공격하거나 특정 이익 단체를 자극하지 않도록<sup>13)</sup> 애를 쓰기 때문에 교과서가 너무 단순하고 깔끔하기만 하다고 지적하고, 방만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결론지었다<sup>14)</sup>.

존 애덤스 대통령과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전기를 써 두 번이나 풀리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역사가 데이비드 맥클로우(David McCullough)도 사회과 교과서들이 너무 따분하게 쓰여 마치 역사에 대한 흥미를 없애기 위하여 디자인된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사회과 교과서들을 사용하는 대신 다른 참고 자료들을 통해 역사와 지리를 가르쳐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 그도 사회과 교과서들이 특정한 그룹(소수 인종, 여권 신장 옹호주의자 등)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정치적으로만 정확하게' 쓰려고 하여 역사적인 분쟁이나 갈등

에 대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이처럼 교과서가 너무 방만하기만 하고 사실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행태가 거대한 출판사들의 영향력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고, 주 정부 수준에서 실시되는 교과서 채택 제도를 없애고 교과서 선택권을 지역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 또는 교사 개개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6)</sup>.

## V. 맺는말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교과서 수요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의 사회과 교과서 채택을 사례로 미국의 교과서 채택 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교과서 채택 제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 나라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별로 교과서 편찬 제도를 분류할 때, 흔히 미국은 교과서 개발은 민간이 자유롭게 하고 선정시에만 정부가 관여하는 인정제를 실시하는 나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교과서 수요가 많은 대부분의 주에서 교과서 채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즉, 미국의 교과서 채택 제도는 주 정부에서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 교과서 채택 평가 기준을 발표한 후, 주 정부에서 심의 위원을 선발하여 주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교과서 편찬 제도의 주류는 우리 나라와 유사한 검정제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채택 심의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심의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심의 위원 이외 일반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은 우리 나라의 검정 제도와 다른 부분이었다. 미국에서는 채택에 출원하는 교과서의 중수가 적고 출원한 교과서는 대부분 채택되며<sup>17)</sup>, 내용의 오류가 별로 없는 완성본이어서<sup>18)</sup> 심의 위원의 명단이 공개

되어도 크게 문제되는 일이 없다.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있지만 독창성이 결여된 것은 주 정부에서 주관하는 교과서 채택 제도에 연유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혹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주 정부 차원의 채택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업적인 거대한 출판사들의 영향력으로 미국에서 교과서 채택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연**

- 1)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습 내용의 75% 내지 90%가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Crawford, Donald B. & Douglas Carnine, "Comparing the Effects of Textbooks in Eighth-Grade U.S. History : Does Conceptual Organization Help?", *Education & Treatment of Children*, Vol. 23, 2000.).
- 2) 'textbook'은 일반적으로 학생용 교재(교과서)를 의미한다. 그러나 채택 심의 대상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사용 지도 자료, 내용이 쉽게 수정된 특수 교육 대상용 교재, CD-ROM, 지도 등의 모든 교재(instructional materials)를 포함한다.
- 3) 미국의 교과서 채택 제도의 기원은 남북 전쟁 이후로 알려져 있다. 이즈음에는 대부분 출판사의 본사가 북군 지역에 있었는데, 종전 후 남군에 속한 지역에서는 북군 지역의 출판사들을 신뢰하지 않아 그들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부 지역에 있는 주를 중심으로 교과서 채택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북부 지방의 출판사들은 남부와 북부 지방의 학생들을 위하여 별도의 교과서를 출판하는 경우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오늘날 교과서 채택 제도를 실시하는 주는 대부분 남부와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교과서 채택 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지역 교육청이 마음대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 교과서 채택 제도가 있는 주에서 채택된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Finn, Chester E. Jr, Diane Ravitch & Thomas B. Fordham Institute staff, *The Mad, Mad World of*

*Textbook Adoption*, Thomas B. Fordham Institute : Washington D.C., 2004.).

- 4) 주 정부에서 채택하는 교과서의 종류, 채택 해당 학년(K~8학년 또는 K~12학년), 한 해에 과목별로 실시할 것인가, 학교급별로 실시할 것인가 등의 세부 사항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http://www.publishers.org/SchoolDiv/textBooks/documents/AdoptionChartAAP06.pdf>).
- 5) 미국 전체의 K~12학년 연간 교과서 시장 규모는 43억 달러인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을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주가 차지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98학년도에 K~8학년 교과서 대금으로 4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였다.
- 6) 미국에서는 1994년 연방 정부가 제정한 교육법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에 의거하여 모든 주가 주요 핵심 교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 사회과는 'History-Social Science'라는 교과명으로 61쪽에 달하는 내용 기준과 234쪽에 달하는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다.
- 7) 평가 기준은 교과서 채택 결정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30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9~12학년 교과서 채택시에도 이 평가 기준을 준거로 심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Criteria for Evaluating Instructional Materials in History-Social Science : Kindergarten through Grade Eight*, 2003.).
- 8) 사회과 교과서는 주에 따라 4~7년 주기로 채택하는데, 이 중 6년마다 채택하는 주가 가장 많다(전게서 주 4).
- 9) 한국 일보. 샌프란시스코 판, 2006. 3. 2. A4.
- 10) 9~12학년의 교과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채택을 하며, 단위 학교에서는 소속된 지역 교육청에서 채택한 교과서 중 1종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캘리포니아 주 교육 위원회에서는 각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교재를 선정하는 것을 돕기 위한 안내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 11)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통합 교육청에서 선정한 사회 교과서가 너무 방대하여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교과서 대금은 학부모들이 기부한 학급 운영비로 충당했다고 한다.
- 12) Jepsen, C. & S. de Alth. *English Learners in California Schools*. Public Policy Institute in California, 2005.
- 13) 캘리포니아에서는 'Social Content Standards'를 채

택하여 교과서에 인종, 피부색, 성별, 국적, 나이와 관련하여 차별적인 용어나 내용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예로 'man', 'mankind', 'manpower', 'able-bodied', 'aged', 'babe', 'idiot', 'imbecile', 'Redskin', 'sissy', 'suffragette', 'waitres' 등의 용어는 캘리포니아 주가 채택한 교과서에 사용하지 못한다.

- 14) Ravitch, Diane. *A Consumer's Guide to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Thomas B. Fordham Institute : Washington D.C., 2004.
- 15) Archibald, George, <http://www.washingtontimes.com/specialreport/20040328-125027-5592r.htm>, 2004.3.28.
- 16) 전게서 주 2)
- 17) 2005년 캘리포니아의 초등 학교 사회과 교과서 채택에 출원한 교과서 수는 4종이었으며, 이 4종 모두가 채택되었다.
- 18) 2003년에 있었던 텍사스 주의 사회과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심의 위원들은 심의 대상 28책의 교과서에서 533항의 사실 오류와 견해상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이에 출판사들은 351항에 대해서는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하였고, 나머지는 오류가 아니라 심의 위원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전게서 주 12).

# 극화 학습으로 '상상하는' 역사 이야기

글 이연경(대구 경북고등학교 교사)



## I. 들어가면서

역사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과거 인간의 삶을 배우는 일은 현재의 나와 너를 알고 그보다 나은 ‘발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고민의 출발점이다. 생각을 해야 ‘고민’을 할 수 있기에 역사 교육의 목적도 역사적 지식을 암기하여 시험 문제를 더 맞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 두어야 함이 당연하다.

역사적 사고력을 키운다는 것은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하는 사고 과정을 학생들이 거치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 역사적 사고력은 두 가지 사고 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역사적 자료를 비판, 분석하여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탐구 기능과 인물에 대한 감정 이입과 과거 시대에 대한 구조적 상상, 직관, 통찰 등으로 일컬어지는 역사적 상상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역사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탐구해야 하는 과학과는 구별되는 학문이다. 인간의 일이 과학처럼 법칙대로 이루어지는가? 인간의 일은 그 결과만 알면 다 아는 것이 되는가? 오히려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이 행해진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역사이다. 이를 생각해 볼 때 합리성, 과학성을 특징으로 하는 탐구 기능보다는 역사적 상상력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데에 더 필요한 기능이자 역사적 사고력의 본질과도 더 밀접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역사 공부에서 상상을 함으로써 옛날 사람들도 우리가 겪는 공포, 희망, 불확실성, 용기 등을 겪었음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비로소 딱딱한 역사적 자료는 생명과 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역사가 제공하는 학습 분야는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주제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상을 통해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며 지적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라의 골품제는 현대에는 없는 개념으로 자칫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나 골품제의 한계로 인해 고민하는 그 시대의 인물이 된 것처럼 가상 일기를 한번 써 본다면 학생들에게 골품제는 훨씬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되며 이를 통해 신라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도 생길 것이다.

상상은 고정적이고 협소한 사고의 틀과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새롭고 색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로 창의성, 독창성, 융통성을 말하며 이는 곧 창의성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내가 가르치는 나의 학생들이 열심히 상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극화 학습이다. 극화 학습은 이미 학계나 일선에서 역사의 상상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업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바, 극화 학습을 응용한 다양한 수업 기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 II. 열령똥똥 극화 학습 이야기

역사 수업에서 행하는 극화 학습은 바로 역사 연극을 만드는 것이다. 역사적 상황을 극으로 구성하여 실연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후 토론을 거치는 형식으로 주로 진행되는데, 일종의 문제 해결형 수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극화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모둠을 구성하고 극화할 주제 - 지정 주제이거나 자유 주제일 수 있다. - 를 정한 다음,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극본을 쓰는, 즉 역사적 글쓰기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극본을 쓰기 위해서는 자료를 분석적으로 비판하는 탐구 기능과 자료로 메워지지 않는 상황을 스스로 추체험하고, 감정 이입하고, 구성하는 역사적 상상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연극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모둠별로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 와중에 상호 의견 교환을 하는 등 협동 학습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연극 실연을 하는 동안 관객 입장의 학생들에게는 추후 토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탐구 과제가 주어지고 이에 따라 추후 토론을 거친 후, 연극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기 초에 극화 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임을 학생들에게 미리 제시하고 주제에 따라 극을 구성하게 하였는데, 학생들이 준비해 온 극화의 형태를 크게 분류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1. 가상 역사 토론회

역사적으로 큰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토론회의 형식으로 전 학생이 토론자가 되거나 각 입장의 대표자가 토론하는 수업이다. 역사에서 대립되는 여러 집단, 계급의 갈등과 입장을 청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 - 예시 대본(학생 작품) -

##### <개화파와 위정 척사파의 가상 역사 토론회>

개화파 : 안녕하십니까? 개화파 대표 '문열자'입니다. 저는 우선 개화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보다는 위정 척사 사상이 시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위정 척사파가 서양의 공산품과 우리의 농산물을 교역한다면 우리가 경제적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선도 서양의 공산품을 만드는 법을 배워서 서양에 내다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나에 지금은 눈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것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위정 척사파 : 아니,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세계에 눈을 돌리기 이전에 우리 나라부터 우선 자세히 보세요. 얼마전까지 안동 김씨 집안이 세도를 부려 나라의 기강이 말도 안 되게 흐물흐물하게 되었소. 게다가 서양 놈들은 꼭 짐승들같이 무엇이든 집어삼키려고 하니……. 그 영국한테 북경이 함락된 중국 이야기도 못 들었소? 남들 이야기도 아니지. 병인년에 프랑스 놈들이나 신미년에 미국 놈들이나 생긴 것부터 짐승과 뭐가 다르니까? 우리 대원군께서 강력하게 척화비를 세우고 양놈들을 물리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나라부터 우선 유교 정신에 따라 제대로 왕권을 정비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문을 열자마자 그놈들이 우릴 잡아먹으려고 들게요.

제시하게 됨으로써 이 수업은 확고부동한 과거의 사실을 설명하는 전통적 수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찬반의 논리적 대립이 있는 수업으로 발전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사고의 폭을 넓혀 주어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 2. 모둠별 탐구 과제 발표형

탐구 과제의 제시에 따라 모둠별로 세부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각기 다른 형태의 과제로 수행한 다음, 본시 수업 내에 발표하는 형식이다. 일반적인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며 연구 수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예를 들면,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모둠별로 세부 주제를 따로 정하여 ‘암행어사 보고문’, ‘매관매직에 대한 연극’, ‘농민들의 의식 성장 요인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발표를 통해 교사는 설명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수업 참여와 학습 내용 이해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3. 역사 재판회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의 행동에 대하여 재판 형식으로 평가를 내려본다. 이 수업도 토론회 형식과 같이 어떤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리적 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된다. 또,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역사적 인물의 행위 결정 원리, 곧 특정 시대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그 인물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역사적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도 다수의 증인, 배심원 등의 역할을 설정할 수 있어 다수 학생들을 수업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고 대사 위주이므로 많은 동작 연습을 필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너무 정적으로 흐를 염려도 있다.

### - 예시 대본(학생 작품) -

#### <홍선 대원군에 대한 가상 재판>

검사: 홍선 대원군의 유죄를 증명해 줄 증인을 한 분 모시고자 합니다. 증인 출석해 주시죠.

증인: 네, 저는 이 재판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검사: 증인, 증인의 선산에서 홍선 대원군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벌목을 해 갔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증인: 네, 사실입니다. 저희 조상님을 모신 선산의 귀한 나무들을 군인들이 마구 베어 갔습니다요.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제발 조상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온 힘으로 사정을 해 보았습시다만, 흐흐흐 죽어서 조상님을 어떻게 봐야 할는지 흐흐…….

검사: 증인 진정하시고 그럼 도대체 그 나무들을 왜 베어 간다고 하던가요?

증인: 흠, 무식한 제가 듣기로는 경복궁을 짓는 데 쓸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임금님이 거처하실 궁궐을 지을 나 무인데 한낫 백성이 아무것도 모르고 방해한다고 저를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검사: 이와 같이 백성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경복궁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마구 착취한 홍선 대원군의 유죄를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 4. 각종 대회 형식

한 시대를 배우고 난 다음,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내세워서 일종의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각 모둠마다 한 명씩 출전 선수를 배출하고 전 학생들이 심사 위원이 되어 누가 더 역사적 업적이 큰 승자인지를 점수를 통해 가린다. 출전한 선수들은 인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자신이 대변하는 인물의 역사적 업적을 여러 관중들 앞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친구들의 표를 받아 점수화하는 것으로 수행 평가를 시행하며 모둠마다 친구들의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각기 대변하는 인물에 대해 집중 탐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 학생이 모둠별로 경쟁하는 동안 극화 학습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고 자연스러운 인물사 학습이 이루어진다.

##### - 예시 주제 -

- 조선 시대 가장 마음씨가 고운 여인은 누구일까?
- 조선의 최고 도둑은 누구일까?

#### 5. 역사적 글쓰기와 상상화 그리기

본격적인 극화 학습 이전에 역사적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키거나 극화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이다. 역사적 글쓰기의 한 형태인 ‘인터뷰하기’, ‘가상 일기 쓰기’ 등은 역사적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한 사람의 내면을 탐구함으로써 그 시대와 연관지어 인물에 대한 감정 이입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역사의 발전이 나타났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가상 일기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인물은 한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한, 잘 알려진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평범한 소시민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역사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것임을 학생들이 이해하게 된다.

##### - 가상 일기 예시 -

**과제:** 자신이 칼뱅의 종교 개혁 당시 그의 교리를 받아들인 스위스의 상공 시민이라 가정하고 가상 일기를 써 보시오.

<중략>

옆집의 구스 씨는 오늘도 술을 먹고 왔는지 밖이 소란스럽다. 저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아마 저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시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저 사람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께 구원을 예정받은 사람이 어떻게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저렇게 쓸데없이 돈을 쓸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돈만 너무 열심히 모으고 사는 재미를 모른다고 구스는 어느 날 술을 먹고 욕을 했었지. 천만의 말씀! 내가 돈을 모으는 것은, 그리고 내가 돈을 잘 버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 나의 직업에 충실하게 열심히 신발을 정성껏 만들어 팔고 구원을 예정받은 사람답게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다.

<중략>

### Ⅲ. 나오면서

이상의 수업 방법들은 더 이상 ‘들어라, 적어라, 외워라.’ 식의 역사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의 삶을 생각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부족한 시도들이었다. 쉬는 시간마다 찾아오는 학생들과 함께 극화 주제와 적절한 표현 방법을 강구하였던 시간들이 재미있기도 했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었다. 빠듯한 교과서 진도의 부담 속에서 효율성 있는 시간 배분과 역사적 상상력과 창의성 증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학기 초부터 극화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한편으로 극화 학습을 진행하면서 대본뿐만 아니라, 무대 장치와 소품 등의 준비를 학생들이 별 무리 없이 창의적, 독창적 아이디어로 해결할 때면 놀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위정 척사파가 ‘왜인과 서양인을 짐승으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외국 배우 브래드 피트의 사진과 외계인 이티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이야기를 하는 식이다. 극화 학습은 평소 교과서 외의 책을 보지 않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해매는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제시하는 대본이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흘러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학생들은 대본에서 단지 역사적 사건의 전개 과정 등 외연에만 치중하여 그것을 단순 묘사하는 데 그쳐 정작 인물 서로 간이나 한 인물의 내적 갈등 등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연극을 실연하기 전에 교사의 사전 첨삭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연극 실연 후에도 교사가 극의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거나 발문을 통해 지적해야 한다.

게다가 극화를 통해 수행 평가를 시행할 때에 정확한 평가 자료를 구하고 만들어 객관화시키기가 어려웠다. 극화 학습에서 평가의 기준은 모둠원들 상호간의 협조도와 참여 정도, 극의 전체적인 완성도, 독창적인 표현력 등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인 명시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과제이다. 때로는 과제에 따라 엉뚱하게도 역사 교육의 본질과는 상관 없는 미술 실력 등으로 평가하게 될 때도 있었는데, 이것을 역사적 사고력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평가할 수 있을지도 해결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창의적인 교사만이 창의적인 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다. 처음에는 어설피지만 교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사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으며 역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참신한 수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계속 고민해야겠다. **연**





#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글 이명희(공주대학교 교수)

## 1. 우리 나라에서 교과서 문제의 특수성

교육과 교과서는 국가·사회의 특수성을 밀접하게 반영한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100년 또는 2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 및 민주화의 과정을 약 50년 동안에 압축적으로 경험하였다. 게다가 통일된 민족 국가를 이룩하지 못하고 아직도 분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특수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우리 나라에서는 부동산 정책이나 평준화 문제와 같은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나 이라크 파병 문제 등 외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크게 양분된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다. 또, 이념 문제에 대해서도 ‘좌익용공’이라는 용어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이념을 비난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이나 교과서가 어떤 일방적인 이념에 치우치게 될 경우 심각한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을 예측하게 한다.

실제로 제7차 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커다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특수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왔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금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특수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국정 교과서’(1종 교과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초등의 전 교과서와 중등에서 국민의식 형성과 관련한 국어 및 국사 등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정제’를 고수하면서 전면적인 통제를 계속해 왔다. 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는 커다란 방향 전환이다. 정부는 방향 전환에 앞서 지금까지 ‘국정제’의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비판을 감내하면서도 ‘국정제’를 고수해 온 이유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변화로 인하여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대비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국민 통합의 기반은 헌법 정신

교육은 ‘나라세우기’와 직결된다.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근대 교육을 확립할 수 있었던 나라는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는 식민지를 경험하고 난 이후인 20세기 후반기에 근대 교육 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발전시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는 이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헌법 정신과 현실의 정치 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현실 정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먼 행태가 행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갈등은 크게 해소된 반면, 국민 내부에서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민주화의 과잉 속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가치관과 욕구가 분출되면서 국민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대한 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관해서도 이념적 대립과 함께 갈등이 일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시절에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 ‘국정제’를 통해 정부 입장에서 ‘교육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국정제’는 시대 착오적인 제도라고 비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정제’를 폐지하고 ‘검정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도 또 일부에서는 ‘검정제’도 ‘국정제’의 변형이라고 비판하면서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 발행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가운데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검정제’로 갈 경우 국민 내부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물론, 혹자는 ‘국민 내부에 갈등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시대적 전환기일 뿐 아니라, 우리 나라가 현재 안보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한 민국의 정통성이나 정체성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 내부에 갈등이 일고 이념적 편향이 확대된다면 이는 가벼이 볼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러면 포스트 민주화 시대에 ‘교육의 통일성’은 어떻게 접근될 수 있을까?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국민 간의 분열과 갈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 정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과서 검정 기준의 개발시에 ‘헌법 정신’에 대한 강조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한 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따르고 지켜야 할 기본 가치와 규칙을 담고 있어 국민 통합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와 배경은 다르지만 학교 교육을 통해 국민 통합을 추진한 전통이 길다. 세계 각지의 다양한 민족들로 미국 국민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교과서 인정 기준에는 ‘법률에 위배된 파당, 종파, 교의, 선전의 배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 교과서에 미국 독립 선언문, 미국 헌법의 내용 포함’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예를 참조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헌법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대한 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교육을 통해 헌법을 공부하는 한편, 대한 민국이 현대사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와 남겨놓은 과제,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공통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교과서 관련 법 규정의 정비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기본 원리로 한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이념 편향성을 극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여 현재 있는 정파들 가운데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어떠한 정치 이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행태는 정치적 무관심을 확대할 뿐이다.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정신을 옹호하고 ‘헌법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헌법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관련 법률들을 정비함으로써 정치인 등이 임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좁히는 길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 나라는 교과서 검정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이 대통령령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즉, 교육인적자원부가



현행의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교육과정·교과서 위원회’로 확대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설 독립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이 위원회에는 교육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문화계의 인사를 비롯하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시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구성하여 교과서 검정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 위원들을 위촉하는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구성하는 ‘교과용 도서 심의회’도, 이들이 위촉하는 ‘검정 심의 위원’들도 그 지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구성되어 책임성과 계속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검정 심의 위원들이 교과서가 개발된 이후 구성되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우수한 연구자나 교과 전문가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교과서 검정 업무가 있는 동안에만 임시적으로 교과서 검정을 위한 인원이 배치되고 연구가 행해질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중등 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를 개정하여 교과서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법령에 기초하여 현행의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교육과정·교과서 위원회’로 확대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설 독립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이 위원회에는 교육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문화계의 인사를 비롯하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시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보다 전

문성을 갖는 ‘교과서 검정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과서 검정 합격 여부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현행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실무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명기하여, 검정 실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상설·독립 기구화 된 ‘교육과정·교과서 위원회’의 지휘와 감독하에 ‘교과서 검정 심의 위원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부의 상설 조직이 검정 판정과 검정 실무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로써 교과서 관련 업무의 담당 기관과 책임 한계가 명확히 되고, 교과서 업무가 축적·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조 및 제27조에는 교과서 내용의 수정 및 개편과 관련하여, 그 주체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권한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 도서나 인정 도서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으며, 국정 도서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개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정치적 신조나 의도가 개입할 소지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하여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정 및 개편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교과서 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과서 검정시 출판사 또는 필자 측에서 검정의 결과에 대해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고, 국정 도서의 개편에 대해서도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4. 교과서 채택 방법의 개선


우리 나라에서 교과서 채택은 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선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한 교과서 채택 방법으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교육의 최종적인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산업계와 문화계 및 지역 사회 인사들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가 개별 교사 차원에서 단시간 내에 행해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충실한 파악을 한 후에 선택하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공립 학교는 시정촌(市町村) 교육 위원회별로 교과서 채택 지구 협의회를 조직하여 채택하고 있다. 이 때,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 위원회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장 및 교원, 교육 위원회 관계자, 학식 경험자로 구성되는 ‘교과용 도서 선정 심의회’를 구성하여, 각 교과서마다 조사원을 위촉하여 조사·연구 결과를 선정 자료로 작성하도록 하여 채택권자에게 송부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공인된 기관이 중심이 되고, 각계각층을 포괄하여 교과서별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학구별 또는 지역별로 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 내 학식자 등이 참가하여 ‘교과서 채택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하도록 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공인된 기관으로서는 시·도별로 설립되어 있는 교육 과학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별로 설립되어 있는 교육 과학 연구원이 주관하면 지역별 특성이 교과서 비교·분석에 반영될 수 있어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 맺음말

지금은 시대적 전환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통합이 매우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으로부터 이념적 편향을 극복하고 국민적 공통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이념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한편, 교과서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의 검정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교과서의 채택과 관련해서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선택 주체들에게 공정한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학부모와 지역 사회 인사도 교과서 채택 논의에 참가하는 방향에서 개선안을 그려 보았다. 



# 현대사 서술의 전환적 모색



글 **관희**(고구려연구재단 대외협력실장)

## 1. 들어가며

현대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바르게 처리할 역사적 능력을 계발, 신장시키고, 민족의 역량을 확인하는 속에서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해 준다. 학생들이 역사를 학습하는 궁극적 목적이 과거 이해를 통해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역사적 지식을 재창출하는 데 있으므로 현실 세계와 가까운 때의 역사일수록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 학습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현대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우리 민족이 근·현대의 세계 속에서 발휘해 온 역량을 주체적,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21세기 우리 민족사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도록 하는 데 둔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분단과 급격한 변화를 거듭해 온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현대사를 둘러싼 편향성 논란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어 역사 교육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최근 광복 전후사의 재인식이 출간되면서 종전에 발간되었던 광복 전후사의 인식에 대한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고 현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유감스

럽게도 이러한 여파는 그대로 교육계로 연계되어 현재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학이라는 특성과 함께 현대사는 아직 그것에 관한 평가는 물론이고 자료의 정리도 미처 이루지 못한 부분이 많고 게다가 현대사의 사실들이 현재 생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편향 시비로부터 현대사 교육을 구해 내어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에게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심어 줄 수 있는 유용한 학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는 현재 역사 교육계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2. ‘편향’이라는 판단

사전적으로 ‘편향’이란, 어떤 사물이나 생각 따위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침이라고 되어 있다. 즉, 일정한 가치 기준을 두고 이로부터 좌나 또는 우로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치우친 경우를 뜻하는 용어라고 하겠다.



따라서, ‘편향’이라고 판단한 과정에는 두 가지 논리적 오류가 내재할 수 있다. 하나는 일정한 기준이라 하는 것, 그것이 갖는 주관성의 오류이다. 예컨대 1에서 9까지의 스펙트럼 속에 다양한 가치관이 있다고 할 때, 2의 관점을 합당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5는 균형적 관점이 아닌 우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5의 기준점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좌 또는 우 편향이라고 공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편향’이라는 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자연 과학적 객관성은 아닐지라도 사회 일반이 공감할 수 있는 이른바 공동 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가진 합당한 기준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1에서 9까지라 하는 스펙트럼의 나열이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 등 새로운 연구 성과에 의해 언제나 그 스펙트럼은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 시대에 구성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객관적 기준이라 할지라도 스펙트럼의 변동에 따라 그것은 파기되거나 영향력을 잃게 되고 다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가치 판단에는 언제나 시대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편향’이라는 판단에는 그 판단의 기준 속에 ‘객관성’과 ‘시대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 3. 현대사 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그렇다면 현대사 교육에 있어 객관성과 시대성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 것일까? 이를 진단해 보기 위해 현대사 연구의 동향과 역사 교육을 둘러싼 학습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 (1) 현대사 연구 동향

현대사의 연구 동향과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광복 후 추진되어 온 일련의 정치·사회적 변동을 거론해야 할 것이지만 이는 이 글의 논지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역사 연구 성과와 동향 변화에 관해서만 간략히 짚어 보기로 한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현대사는 분단과 냉전이라는 시대적 제약과 그에 따른 자료 습득과 취급의 제한, 현대사에 무관심했던 역사학계의 전통, 연구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나마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정치학 분야에서 다룬 것이었다. 사회주의 계열의 신국가 건설 운동이나 북한 정권에 관한 연구는 금기에 가까웠다. 게다가 군사 정권의 성립으로 근대화 논리와 안보 논리가 중시되면서 현대사 연구 시각의 제한을 가해 온 것도 사실이다.

1980년대 이후 연구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해 왔다. 민주화의 진전과 냉전의 완화 등과 함께 금기 영역에 대한 도전적 연구가 시도되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80년 중반의 ‘한국 민주화’ 사건과 1986년에 완역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과 같은 수정주의 입장에 선 한국 현대사 연구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영향을 받은 연구층은 주로 소장학파였다. 그 동안 제한되었던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것에 강요된 망각을 기억의 장으로 끌어 내면서 현대사 연구의 장을 넓혔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구 성과는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역사 연구의 실천성과 현실성을 담아 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실천성을 중시했던 연구 경향은 차츰 변화하게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권 국가의 분열과 정권 교체 등 민주화의 가시적 성과들이 등장하면서 실천성과 현재성을 담은 연구로 사회변화를 이끌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던 것이 한 원인이었으며, 전대에 이루어진 담론적 성격의 연구를 사료 고증과 다양한 방법론 도입을 통해 좀더 학문적 치밀성과 체계성을 마련하려는 역사

학계의 연구 심화 풍토가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2) 교과서 발행 환경의 변화

다른 한편에서는 다원화·민간화로 전환해 나가는 흐름 속에서 역사 교육의 개선 움직임이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1974년 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이 시작된 이후 제6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국사는 계속 이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처럼 국사 교과서가 국정 단일권으로 보급됨에 따라 제5차 교육과정까지는 다양한 역사적 인식을 저해하고 때때로 국사 교육이 정권의 정당화를 위해 봉사해 왔다는 비판이 제시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에 와서는 다양한 견해를 한 권의 책 속에 아우르려다 보니 무미건조해져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떨어뜨리고 외워야 할 지식만 산재한 교과서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제7차 교육

과정에서 고등 학교 선택 과목이 확대되고 선택 과목 교과서의 검정 발행이 정해짐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국사 영역의 교과서로서는 처음으로 오랜 국정의 벽을 깨고 검정·발행을 하게 되었다.

## (3) 검정 교과서의 현황

검정 발행의 취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를 생산하여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 경쟁을 통한 교과서의 질적 제고를 도모한다는 데 두고 있다. 이러한 검정의 취지에 걸맞게 현행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편성 체계에서부터 내용 서술, 제시된 학습 자료들은 제각각의 개성과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의 표는 한국 근·현대사 중에서 현대사에 해당하는 ‘현대 사회의 발전’ 단원의 각 교과서별 구성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현대 사회의 발전’ 단원 구성

교육과정	(주)금성출판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주)
<b>(가) 대한 민국의 수립</b> (ㄱ)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ㄴ) 8·15 광복과 분단 (ㄷ) 5·10 총선거와 대한 민국의 수립 (ㄹ) 6·25 전쟁	<b>1장. 광복과 대한 민국의 수립</b> 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2. 8·15 광복과 통일 국가 수립 운동 3. 대한 민국의 수립과 분단 4. 6·25 전쟁	<b>1. 대한 민국의 수립</b> (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2) 8·15 광복과 분단 (3) 5·10 총선거와 대한 민국의 수립 (4) 6·25 전쟁	<b>Ⅳ-1. 대한 민국의 수립</b> 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2. 되찾은 산하, 갈라진 남과 북 3. 냉전의 현실 속에 통일 국가의 꿈은 깨어지고 4.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다
<b>(나)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b> (ㄱ) 4·19 혁명 (ㄴ) 5·16 군사 정변 (ㄷ) 민주주의의 시련과 민주 회복	<b>2장.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b> 1.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성장 2. 5·16 군사 정변과 유신 체제 3.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	<b>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b> (1) 이승만 정부의 독재 체제 강화 (2) 4·19 혁명 (3)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의 출범 (4) 유신 체제 (5)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 (6)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	<b>Ⅳ-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b> 1. 4·19 혁명 2. 5·16 군사 정변 3. 민주주의의 시련과 민주 회복

교육과정	(주)금성출판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주)
<b>(다) 통일 정책과 평화 통일 의 과제</b> (ㄱ) 북한 체제의 고착화와 북한의 변화 (ㄴ) 통일 정책과 남북 대화 (ㄷ) 국제 정세의 변화와 평 화 통일의 과제	<b>3장. 북한의 변화와 평화 통 일의 과제</b> 1.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김 일성 체제의 확립 2. 주체 사상과 김정일 후 계 체제 3. 변화를 모색하는 북한 4. 통일 정책의 전개와 남 북 교류 5. 국제 정세의 변화와 평 화 통일의 과제	<b>3. 통일 정책과 평화 통일의 과제</b> (1) 북한 체제와 북한의 변화 (2) 통일 정책과 남북 대화 (3) 국제 정세의 변화와 평 화 통일의 과제	<b>Ⅳ-3. 통일 정책과 평화 통일</b> 1. 6·25 전쟁 이후 북한 의 변화 2. 7·4 남북 공동 성명 : 대 화와 협력을 다짐했건 만……. 3. 민족의 소망 평화 통 일을 향하여
<b>(라) 경제의 발전과 사회·문 화의 변화</b> (ㄱ) 경제 혼란과 전후 복구 (ㄴ)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 의 발전 (ㄷ) 사회의 변화 (ㄹ) 현대 문화의 동향  ※ 두산동아, 법문사, 천재 교육은 교육과정과 동일 한 편제를 취하고 있음.	<b>4장.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 의 변화</b> 1. 광복 이후의 경제적 상황 과 전후 복구 2.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의 발전 3. 사회 변화와 사회 문제 4. 현대 문화의 동향	<b>4. 경제의 발전과 사회·문 화의 변화</b> (1) 경제 혼란과 전후 복구 (2)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 의 발전 (3) 사회의 변화 (4) 현대 문화의 동향	<b>Ⅳ-4. 경제의 발전과 사 회·문화의 변화</b> 1. 경제 혼란과 전후 복구 2. 눈부신 경제 성장, 자 본주의의 발전 3. 현대 사회의 변화 4. 우리 문화 다양하고 풍부해지다

※ 이 표는 김한중(2003). 「고등 학교 검·인정 국사 교과서 교원 연수 교재」, 국사편찬위원회, 155~156쪽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일단 위의 표에서 정리된 외형 체제만으로도 각 교과서는 단원의 구성과 제목 내용의 안배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 서술이나 수록된 자료에서는 좀더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집필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 교과서에 대한 관점, 교과서 구성과 편제에 관한 견해, 현대사 연구 성과에 대한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 단일권으로 발행되던 국사 교과서에 대비해 보면 엄청난 변화였다.

각 교과서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교과서가 좌편향 또는 우편향이라고 선불리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교과서가 처음 공

개되던 2002년, 정권 미화의 편향 서술의 정치 공방과 이에 따른 교과서 파동을 상기해 본다면 각각의 교과서는 주제에 따라 보수로부터 진보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이후의 현대사 연구 성과와 교과서 검정 발행이라는 제도 개혁이 맞물리면서 전개된 전환기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모습이 당초 현대사 교육이 이루고자 했던 취지 달성으로 안착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된 편향 논란으로 현대사 교육 축소로 퇴보할 것인지 역사 교육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4. 편향성 논란과 반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 중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것은 그간의 교과서 서술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등장하면서부터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학계의 새로운 연구 성과 축적이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며 여

기에다 한국 근·현대사라는 새로운 과목이 등장하면서 종전의 과목보다 근·현대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됨에 따라 다루려는 주제나 수록된 서술 내용이 대폭 증가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교과서 보급 이후 편향 서술 문제가 제기된 부분과 이에 대한 반론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편향 논란' 부분의 주장과 반론

문제 제기	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승만의 독립 운동 서술은 소홀히 다루고, 사회주의 운동은 자세히 서술</li> <li>-예컨대 보천보 전투 등 동북 항일 연군, 원산 총파업, 압태도 소작 쟁의 등 자세히 서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 강점하 독립 운동을 외교론과 준비론(실력 양성론), 무장 투쟁론의 3가지 노선으로 보고 고루 서술</li> <li>-그런 가운데에서도 민족주의계 항일 운동의 분량이 더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방 직후 정치 상황에 대해 좌편향적으로 서술</li> <li>-미 군정 및 소 군정의 포고문을 병렬 제시하는 등 미 군정을 비판하도록 유도</li> <li>-건국준비위원회를 과도하게 평가</li> <li>-제주도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좌익의 책임을 전가</li> <li>-6·25 전쟁의 책임을 흐리는 수정주의적 서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정기의 통치 정책은 미·소 모두 동일 비중으로 취급</li> <li>○ 건국준비위원회는 현행의 개설서에서 모두 중시하는 부분</li> <li>○ 4·3 제주 폭동 등은 정부 차원의 위원회 성과를 반영하여 기술</li> <li>○ 6·25 전쟁에 대한 수정주의적 시각이라는 지적을 수용할 수 없음.</li> <li>-남침 도발 사실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 정권은 비판하고 북한 정권은 비판 없이 사실 서술</li> <li>-이승만, 박정희를 독재 정권으로 묘사</li> <li>-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측면 서술</li> <li>-북한 정권의 문제점은 간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 정권에 관한 서술은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단원에서 취급하고 있고, 북한 정권에 관한 서술은 통일 정책과 평화 통일이라는 단원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서술 체제가 다름.</li> <li>-김일성의 권력 독점 과정이나 주체 사상은 비판적으로 접근</li> <li>-북한의 경제 성장의 부진, 식량이나 에너지 부족, 이로 인한 통치 체제의 불안 등 서술</li> </ul>

※ 이 내용은 양측이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아니라, 언론 보도 및 역사 교육 92집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로 필자가 요약·정리한 것임.

양측의 공방을 앞의 표에 언급된 내용만으로 본다면 편향이라고 비판하는 측에서는 종래 다루지 않았던 사회주의 노선이나 좌익 계열의 관련 사건 또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연구 성과에 대한 낯선 감정을 드러 내는 것으로 앞의 표현에 의하면 시대성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구 성과나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 없이

이전의 잣대로 현재의 서술 현황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한편,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수록 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성과 학계 성과 반영이라는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종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역의 취급에 대한 좀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아쉽다. 예컨대, 연구 대상의 확대라든가, 연구 방법론의

개발 또는 역사 교육적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왜냐 하면, ‘학계의 성과’라는 근거만으로 학습 내용을 선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용 선정에 있어서는 학계의 성과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상황, 국가·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5. 전환적 해결을 기대하며

어쨌든 양측의 논란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다만, 현재의 교과서들은 검정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거쳐 활용되고 있으므로 절차의 합법성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검정 발행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다양한 교과서 서술을 허용하되, 그 차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교과서 채택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만약, 현행 교과서 중 자신의 입장과 배치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비판하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대안으로 직접 교과서를 개발하고 편찬하여 제도적 바탕 위에서 평가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운용의 합법성, 참여 기회 등의 절차적 민주성에만 의존하고 민감한 현대사 문제를 학생 교육에 활용될 교과서에 남겨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왜냐 하면, 아직 현대사 부분은 학계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검토되어 일정한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므로 학문적 논쟁 사항을 교과서 제도 운용에 맡기는 형세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사가 아닌 한국 근·현대사를 먼저 검정 발행으로 시도한 것은 너무 시대성을 앞세운 행정 판단이 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곧바로 교과서 서술로 이행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책으로 논쟁 분야를 거를 수 있는 중간 협의체의 역할을 제안해 본다. 현재의 교과서 공방은 교육 외적 문제로부터 제기되고 무마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비가 제기될 때마다 대중

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교과서 담론은 비전문가들에 의한 공론(空論)으로 또는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 정치적 타협에 의한 기형적 산물로 나락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를 역사 연구와 교육 요구의 판단 속에서 보호해 나가는 장치망으로서의 중간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 협의체에서 담당해야 할 몫은 한국 근·현대사 활용 2년의 공과에 대해 진지하게 평가하고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에 대한 공적(公的)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 때의 공적 기준이란, 종전의 지침이나 규정과 같은 제도적 권위로서가 아닌 다양한 요구와 식견을 아우르는 합리적 권위로서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협의체는 학문적 식견과 현장의 경험을 소유한 전문가, 즉 역사 학자와 역사 교사들로 이루어져야 하되, 협의체의 구성원들은 역사와 교육 문제 이외에도 현대사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과 인식 수준, 다시 말해 현대사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모든 것을 걸려 하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육 자료 중 모범이 되는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즉, 교과서를 통해 자신의 학문적 소신과 역사 인식을 반영한다거나 혹은 그런 경향성으로 인해 현대사 학습의 결과가 하나의 통일된 관점으로 모아질 것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판단은 모두 시대 착오이다. 교과서는 더 이상 지식의 보고(text)가 아니며,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는 학습 자료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바르게 처리할 역사적 능력을 계발하고 민족의 역량을 확인하는 속에서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하는 역사 교육의 본래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학습 지침서(learning guide)로 자리매김될 때만이 불필요한 공방으로부터 현대사 교육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장원창(주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파견교사)

##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제도와 교과서 제도

- 변화의 기로에 선 교육 -

### 1. 우즈베키스탄 교육 개관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은 1990년 초까지 과거 구 소련의 교육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1992년 7월에 마련된 교육법을 통해 사립 학교의 설립 인정과 공립 학교의 수업료 징수 허가, 산학 협력 체제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민주 국가로 전환한 지 오래 되지 않아 우즈베키스탄은 아직도 소련 시절의 잔재가 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데, 교육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은 헌법과 교육법, '인적 자원 양성에 관한 국가 기본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性), 언어, 연령, 인종, 민족, 신념, 종교, 사회적 신분, 직업, 거주지, 우즈베키스탄 거주 기간에 관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교육법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의 목적은 과거 소련 시절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지양하고, 민주 국가로서 시민 정신과 도덕적 품성에 맞는 근본적 개혁을 이루어 질 높은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교육 제도를 민주 사회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 개혁 프로그램과의 연결하고, 둘째, 전문 교원의 확보 및 교육자에 대한 사회적 위신의 제고, 셋째,

교육 기관의 재구성, 넷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교류의 활성화를 하부 목표로 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발전 프로그램은 다음의 세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

제1단계(1997~2001)는 인적 자원 계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단계로서, 하원에서 1997년 8월 '인적 자원 양성 국가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

제2단계(2001~2005)는 '인적 자원 양성 국가 프로그램'의 전면적 실시의 단계로서, 보통 의무 교육의 시행과 물질적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한 조치가 강구된다.

제3단계는 2005년부터 인적 자원 양성 제도의 완성 및 발전 단계로서, 교육과정의 정보화 및 교육 정보망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 2. 교육 제도 및 교과 과정

우즈베키스탄은 과거의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 국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체제의 변환과 함께 교육 부문에서도 민주 교육, 인간화 교육, 민족 교육과 교육의 우선 원칙, 영재 발굴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130여 개의 다민족 국가임을 인정하여 비록 국가어는 우즈베크 어이지만 학교 교육은 아동의 부모의 희망 언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연

어는 주로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로 이루어진다.

우즈베키스탄은 매년 9월 2일에 새 학년이 시작되며, 1년은 4학기(4분기)로 나뉜다. 가을 방학은 11월 4일부터 11월까지 8일, 겨울 방학은 12월 31일부터 1월 10일까지 10일, 봄 방학은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여름 방학은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이다. 수업 일수는 34주이다. 정규 수업은 초등은 40분, 중·고등은 45분이다. 교실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2부제 수업이 실시되며, 1주일에 5일 내지 6일을 수업한다. 한 반은 보통 30명 정도이다.

정규 수업 후에는 방과 후 활동 및 클럽 활동이 이루어진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교육은 주로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

학교 운영 및 교과 운영을 위해 각 학교마다 교사, 학부모, 후원자 등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 위원회가 있고, 주, 도시, 구별로 교육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 국민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고, 칼리지, 리제, 대학은 고등 교육부에 소속되어 그 지휘를 받는다.

### (1) 학교 전 교육(3세~6, 7세)

학교 전의 교육은 건강하고 완성된 인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3살부터 7살 때까지 받는다. 현재 6,742개의 유치원에서 6만 4천여 명의 교사가 61만 명의 아동을 교육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그리기, 만들기, 노래하기 등을 하며,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하는 곳도 있다. 고려인이 많은 유치원에서는 한국어반이 만들어진 곳도 있다.

### (2) 보통 학교 교육

초등 학교(1~4학년), 중학교(5~9학년), 고등학교(10~11학년)로 구성되며, 학교를 나누지 않고, 같은 학교에서 연속하여 교육한다. 9,672개의 학교와 50만 명의 교사, 600만 명의 학생들이 있다. 초등 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간은 의무 교육 기간이다.

초등 학교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 바른 생활, 기본 예술 활동, 보건, 신체 활동 등을 학습한다. 고등 학교는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과 폭넓은 세계관, 창의적인 생각, 자아 형성,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부터는 국가가 정한 필수 과목 외에 선택 과목이 있다.

### (3) 전문 고등 학교와 직업 고등 학교(3년)

전문적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면 전문 고등 학교(리제)와 전문 직업 고등 학교(칼리지)에 입학할 수 있다. 리제에서는 선택한 전공에 따른 전문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다. 칼리지에서는 전문 직업에 대한 기술과 숙련을 훈련한다. 현재 54개의 리제와 533개의 칼리지에서 16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 (4)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

고등 학교 이후의 교육은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의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학사 과정은 최소한 4년 이상이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석사 과정(2년)과 박사 과정(3년)이 있다.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기술 전문 대학(2년)을 갈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전체에 종합 대학교 20개, 단과 대학 43개로 총 63개의 대학이 있다. 이 중 타슈켄트에 31개의 대학이 집중되어 있다.

### (5) 학교 외의 교육

사회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학교 외 교육 기관은 청소년 궁전, 센터, 미술 학교, 음악 학교, 스튜디오, 도서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3. 우즈베키스탄의 교과서 제도

교과서는 교과목에 따라 학교 등급별로 다르다. 교과목은 국가가 정한 필수 과목과 학교가 임의로 선택하는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표 참조)

2005~2006년 우즈베키스탄 초·중·고등 학교 교육과정

	교과목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수업 사수	20	22	24	24	30	32	33	34	35	33	33
1	우즈베크 어(러시아 어)		2	2	2	2	2	2	2	2	2	2
2	문학	8	8	10	10	9	7	5	5	5	4	4
3	외국어					3	3	3	3	3	2	2
4	역사					2	2	3	3	3	3	3
5	국가와 법								1	1	1	1
6	인간과 사회											1
7	경제								1	1	1	1
8	수학	5	5	5	5	5	5	5	5	5	4	4
9	컴퓨터								1	2	2	2
10	물리학, 천문학						2	2	2	2	4	4
11	화학							2	2	2	2	2
12	생물학					1	2	2	2	2	1	2
13	자연과 지리학	1	1	1	1	1	2	2	2	2	2	
14	예절 수업	1	1	1	1							
15	애국					1	1					
16	국민적인 독립 이해와 공리 기초							1	1	1		
17	음악	1	1	1	1	1	1	1				
18	화법	1	1	1	1	1	1	1				
19	설계								1	1		
20	실기	1	1	1	1	2	2	2	1	1	1	1
21	체육	2	2	2	2	2	2	2	2	2	2	2
22	교련										2	2
23	학교 선택 과목	2	2	2	2	2	2	2	2	2	6	6
계	주 총수업 시간	22	24	26	26	32	34	35	36	37	39	39

교과서의 편찬 및 심의, 배포 등 교과서에 관한 모든 업무는 초·중·고 교육부 산하의 교육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교과서 발행은 교육 센터에서 발행 공고를 하여 발행 신청자를 모집하고, 교육 센터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교과서 집필진은 대학 교수 및 학교 교사들로 그룹으로 구성된다. 교과서 집필진은 국가 지침에 따라 한 달 가량 걸려 교과서를 완성한 후 제출한다. 그러면 센터는 학자, 연구사, 교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심의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선정된 교과서는

내각의 결정을 거쳐 출판을 결정하게 된다. 교과서 발행을 승인받은 교과서 집필진은 교과서 발행의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한 교과서의 발행을 위해서 120 일이 걸린다. 교과서의 출판은 교육 센터에서 공고를 한 후에 공개 입찰의 방식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맺는다. 공개 입찰에는 개인 및 국가 출판사의 참여가 모두 가능하다. 교과서의 가격은 교과서의 표지, 내용, 종이의 질, 페이지 수에 따라 달라진다. 교과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화국 전체의 학생의 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다민족 국가의 특성상 전체 7

개의 다른 언어로 교과서가 발행된다. 학교는 학부 모의 희망에 따라 자민족의 언어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자민족의 언어와 문학 교과서는 해당 민족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민족의 모국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기도 한다. 그 밖의 다른 과목은 우즈베크어로 된 교과서를 해당 민족어로 번역하여 교과서를 제작한다. 러시아 어 교재는 물론이고 카자흐어, 타지크어, 키르기즈어 등으로 된 교과서가 있어 자민족의 언어로 교육하기도 하는데, 아직 한국어 교재는 없는 실정이다.

교과서의 배포는 학생 수에 따라 전국의 주(자치 공화국) 교육청, 시 교육청, 구 교육청, 학교를 통해서 배포된다. 1학년은 대통령의 선물로서 무료로 제공되고, 나머지 학년은 교과서를 구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는 4년에 한 번 발행하기 때문에 학교는 4년 동안 교과서를 빌리는 형태로 교과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과서 비용은 4분의 1값에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교과서 발행 비용은 ADB(아시아 개발 은행)의 보조를 받고 있다.

#### 4. 문제와 향후 전망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권위주의적 교육 행태로부터 민주 교육으로의 완전한 전환과 독립 이후의 새로운 세대들에 맞는 교과서와 물질적·기술적 교육 환경의 확충이다. 낡은 학교 시설의 보수와 교과서, 참고서, 멀티미디어 교육 기자재 등이 보급이 시급하다.

교육의 약점은 재정 상태가 어려운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교육 기간을 11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1992년에는 필요 예산의 10% 정도밖에 배정받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의 교육 지원 시스템은 열악한 상황에 있다. 교육 시설면에서는 정규 학교 시설의 50%가 학교 시설로는 적당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건물이


다른 용도로 지어진 것들이다. 약 10%의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고 교내식 또한 부족한 형편이다. 직업 학교 역시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교육용 실습장, 장비의 근대화 및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 학교 중에서 약 40% 학교가 규격에 맞지 않은 시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전체 9,727 학교 중에서 684 개가 파손된 상태이다. 28% 이상 학교들이 2~3부제로 수업을 하고 있다. 실험·실습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약 29%이고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약 15%이다. 전체 학교 중에 약 반만 체육실이 있는데, 그 중에 약 23%만 체육 기구를 상용하고 있다. 특히, 시골에 있는 학교들의 상태가 더 어렵다.

다음으로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하여 사범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학교보다는 대우가 좋은 회사나 자영업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범 대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교직을 천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2,500만의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다. 당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열악하지만 경제 성장과 발맞추어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늘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로서 앞으로 중앙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자리잡을 것이 분명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전체 초·중·고등 학교에서 8천여 명, 대학에서 1천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 숫자는 고려인 동포뿐만 아니라 절반 이상이 우즈베키스탄 민족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도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육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한국을 찾는 유학생 유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 6 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제 5 차와 비교하여 볼 때,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의 편제 변화와 교과서 체제의 획기적 발전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제 5 차의 국어 교과 편제가 그 과목에 있어서 국어, 작문, 문법, 문학의 4 가지였는데 제 6 차에서는 말하기, 듣기 및 읽기 기능의 체계적 신장과 다양한 학습 경험의 제공을 위하여 '화법' 과목과 '독서' 과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국어 교과가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의 6 과목으로 되었다.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도 종래의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을 '방법'과 '평가'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목표'의 앞에도 '성격' 항을 신설하여 교과서의 기본적 성격을 밝혔다. 즉, 제 5 차가 '목표,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이라는 틀을 유지한데 반하여 제 6 차에서는 '성격, 목표, 내용(내용 체계, 내용), 방법, 평가'의 틀로 짜여졌다. 특히, '내용'을 '내용 체계와 내용'으로 구분하고 나아가 '내용 체계'를 '본질, 원리, 실제'로 나눈 것은 교과 내용 선정의 이론적 타당성을 제고하여 주었다. '방법'과 '평가' 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제 6 차 교육과정 개정(1990)과 같은 시기에 추진한 교과서 체제 개선을 위한 '자율 학습이 가능한 모형 교과서 국어(상)'의 개발(1991)은 우리나라 교과서 발전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개발 과정을 여기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 6 차 교육과정 개정은 정원식 장관의 발의로 출발하여 1990년 9월에 합수곤 교육과정 담당관에 의하여 개정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9월 하순에 결재를 받아 10월부터 개정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 연구와 총론 개정안 연구에 착수하였다(합수곤, 2005. 9. 1.). 그러나 제 6 차 교육과정은 그 적용 결과를 보기도 전에 정치적 이유로 들이닥친 제 7 차 교육과정 때문에 역대 교육과정 중에 가장 단명하게 막을 내려야 하는 불운을 맞아야 했다. 제 6 차 교육과정이 고학년 단계에서는 시행되기도 전에 제 7 차 교육과정이 입안되었기 때문이다. 즉, 1995년부터 적용에 들어간 제 6 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5~6 학년과 중학교 3 학년은 1997년부터, 고등 학교 2~3 학년은 각각 1997~1998 학년도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었으나, 제 7 차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고 2000년부터 제 7 차 교육과정 시기에 돌입함으로써, 제 6 차 교육과정은 그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종료되어야 했다(곽병선, 2005. pp. 340~342. 참조). 부상하는 정치 주도 세력이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개혁이라는 칼날을 마구 휘둘렀을 때,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은 무색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고금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그림 1 정원식(문학박사·동송예술재단 이사)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는 광병선의 말(2005. p. 344.)은 매우 시사적이다.

“실재하는 교육과정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정지된 실체로 생각하지 말고, 쉴 새 없이 흐르는 물과 같이 하나의 흐름, 즉 끊임없는 재구성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지금의 세상과 같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인간의 삶에서 이미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다가오는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이 개발하고 결정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언제라도 그것에서 떠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은 개발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미 공적 문서로 채택이 되고 나면, 이제 그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지지되고 보전되거나 폐기될 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일지 모른다.”

국어과에 있어서도 제 6 차 교육과정은 그 적용 기간만으로 보아서는 비운의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6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완수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과정 구성 체제의 발전과 고등학교 교과 편제의 변화, 특히 교과서 체제의 발전에 있어서 그러하였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율 학습이 가능한 모형 교과서의 개발’이 바로 그러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우리는 제 5 차 교육과정의 반성과 제 6 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초 연구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기초 연구(1990. 12.)」라는 연구물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국어과에서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구조 개선 방안 연구’였다. 여기에 참가했던 교과는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 그리고 교양 선택 교과였다. 그리고 국무총리 교육 개혁 구상(1991. 1. 31.)의 일환으로, 참고서 없이도 자율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개발 계획을 수립,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정치·경제, 과학 등의 5 개 과목의 일부 단원을 실험 개발하기로 하였었다. 그러나 후에, 5 개 과목 일부 단원의 개발보다는 국어 한 과목을 모델로 선정, 실험 개발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개발 과정에서는 현직 교사들이 다수 참가하여 현장 실험을 자주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출정식을 거창하게 하였다. 1991년 10월 11일(금) 15시, 교육부 상황실에서 교육부 장관, 문화부장관, 교육부 관계관, 개발 기관 관계자, 연구진, 자문 위원, 집필진 등이 참석하여 윤형섭 장관의 인사와 이어령 장관의 특강을 들었다. 윤 장관은 자율 학습이 가능한 국어 교과서 모형 개발이 타 과목 교과서 개발의 좋은 전형이 될 것과 학생들이 읽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국어 교과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 장관은 국어는 언어로 가르치되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문학 작품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살아 있는 언어를 자료로 언어의 감각을 가르쳐야 한다며 예술과 교육은 구별해야 하나 학생들이 교사 없이도 즐겨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 이어서 연구진, 자문 위원, 집필진의 연석 회의도 하였다. 우리는 그 때 이 일을 맡아 줄 연구 책임자로 서울대학교 사범 대학 국어 교육과의 윤희원 교수를 선택했었다. 윤 교수는 프랑스 파리에서 수학한 재원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편수관실의 국어과와는 각별한 관계를 맺었고, 지금도 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촉망 받는 전문가이다.



오늘날(제 6 차,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의 각 교과 교과서의 체제와 단원 구성의 양상은 1992년에 개발된 ‘자율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모형 국어(상)’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형 교과서의 개발은 1980년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전세계적인 교육 개혁 운동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1991년 1월 31일 당시의 국무총리 노재봉은 교육 개혁 구상의 일환으로 초·중등 교과서의 전면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되 참고서가 필요 없는 볼륨(volume) 있는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문 과학 편수관실에서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던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후에 모형 교과서 개발의 담당 편수관으로 연구 위원과 심의 위원을 겸임하게 되었다.

교과용 도서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지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였다.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미 제 4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개발에서부터 구상이 있었고, 그동안의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가 있다. 다만, 국무총리께서 지적인 참고서라는 말의 의미는 요사이 시중에서 말하는 자습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사전류, 참고 문헌 등은 총리께서 말한 참고서의 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편은 그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정준섭, 2000. 하 pp. 84~85.).

그리하여 수립된 모형 연구 개발 기본 계획 중에서, 현황·목적·대상 교과 체제·소요 예산 및 경비 부담에 대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현 황

- 가. 현행 교과서(제 5 차 교육과정)는 기본 개념과 원리 중심의 기술과 분량 제한 등의 제약으로 교사와 자습서 등의 도움을 받아야 효과적인 학습 가능
- 나. 국어 교과서의 새로운 체제인 영역별 단원 구성(제 5 차 교육과정)은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생소한 느낌을 주어 학생들의 학습 활동 지도에 어려움 가중
- 다. 최근 교육과정 개정 방향인 공통 필수 교과목 수 및 단위 수의 축소에 따라 국어 과목이수 단위 수 감소와 교과서 분량의 축소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읽기 자료의 빈약

## 2. 목 적

- 가.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영역별 편찬에 따른 생소함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읽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읽기 영역의 단원을 증설하되, 목표 중심 단원 구성
- 나.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자습서가 필요 없는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편찬
- 다. 자율적 교수·학습 방법의 창출 유도

## 3. 대상 교과 체제

대상 교과목	쪽 수	판 형	지 질	개발 기관
고등 학교 국어	(상) 300	국판	70g/m <sup>2</sup>	대한교과서(주)
모형 국어	(상) 500	4×6	70g/m <sup>2</sup>	대한교과서(주)

#### 4. 소요 예산 및 경비 부담

가. 소요 예산 : 63,718천 원(산출 기준 및 내역 별첨)

나. 경비 부담 : 대한교과서(주)에서 부담 개발한 후에 교과서 가격 사정에 반영

모형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과 단원의 구성, 그리고 단원 구성 체제는 과거의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획기적이었다(정준섭, 2000. 하. pp. 84~142. 참조).

#### 1. 기본 방향

가. 즐겨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교과서의 편찬

나. 말하기·듣기·쓰기 영역은 별도의 단원으로 설정하지 않고 읽기, 문학, 언어 영역의 단원에서 통합적으로 제시

다. 목표 중심 단원 구성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통한 읽기 및 문학 영역의 자료 확대

라. 교수·학습 자료의 선정은 학생들의 지적, 창의적 특성을 계발하고, 나라 사랑과 겨레 사랑의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것으로 함.

#### 2. 단원의 구성

가. 학습 과제 안내(2~3 쪽)

(1) 학습하는 이유 제시, (2) 학습 목표 제시, (3) 선수 학습과의 관련(선수 학습 요소 파악), (4) 문제 의식의 고취(흥기, 흥미), (5) 학습 내용의 개요(학습 내용의 전체적 성격 파악), (6) 학습의 방향 제시(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절차 파악)

나. 학습 내용 제시(제재+1~2 쪽)

(1) 주요 사실·개념 원리의 제시, (2) 주요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시, (3)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시(학습 과정 유도, 조사, 표현, 감상 등의 요령)

다. 학습 결과 정리·확인(3~5 쪽)

(1) 주요 사실·개념 원리의 발견, (2) 주요 내용의 요약, (3) 학습 결과의 정리·확인, (4) 평가 자료 제시

라. 학습 내용 적용·보충(6~7 쪽)

(1) 발견된 주요 사실, 개념, 원리의 적용과 일반화, (2) 문제 해결의 창의적 접근, (3) 가치·태도의 변화, (4) 보충·심화, (5) 평가 자료 제시

#### 3. 단원 구성 체제(기본형)

가. 대단원 및 소단원명

나. 단원의 길잡이

다. 학습 목표

라. 준비 학습(번호 1은 제 1 소단원, 번호 2는 제 2 소단원의 준비 학습)

마. 본문(제재)

바. 중요 어구, 사. 심화 학습, 아. 참고 자료(‘바, 사, 아’는 본문 하단 또는 날개에 제시)

자. 학습 활동(수업 진행 방식을 고려하여 작성)

차. 단원의 마무리

#### 4. 기타

가. 북한의 언어 현실 소개 또는 표준어와 문화어의 비교 등 통일에 대비한 내용의 설정

나. 관련 독서 자료의 제시

이 모형 교과서의 개발에는 연구진 7명(윤희원 외), 자문 위원 3명(박갑수 외), 집필진 10명(왕문용 외), 검토진 7명(김재홍 외), 심의진 21명(이용주 외)이 참여했다. 특히, 현직 교사들이 다수 참여하여 현장 실험을 자주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형 교과서(1992년 11월 20일 발행)는 새로 개편되는 모든 교과서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개발된 모형 교과서와 연구 보고서를 교육부 내의 전 편수관,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 2종 교과서협회, 각 대학의 교과서 관련 연구 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앞으로도 국어 교과 교육의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시대 변화와 학문의 발전에 따른 바람직한 흐름은 고무되어야 할 것이나, 특정 정치 세력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개혁이라는 칼날로부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이기 때문이다. **연**

〈1982~1994년 국어과 편수관〉

알립니다

### 고(古)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재단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으로  
고(古) 교과용 도서를 수집합니다.

기증해 주신 자료는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교과서 연구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역사적 자료로 소중히 보존하겠습니다.

- 대 상 : 전 교과용 도서(교과서, 인정 교과서, 지도서, 참고서, CD, 테이프 등)
- 수 량 : 제한 없음.
- 기 간 : 수시 접수
- 보 상 : 기증자에게는 '기증서' 교부와 아울러 명단을 영구히 보존하고,  
실비 보상도 할 수 있음.
- 연락처 : (우) 158-86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1 동 1018-2 세원 빌딩 4 층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담당자 앞  
Tel : (02) 2651-1950(대), Fax : (02) 2651-1954



# 제 6 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개편

그림 허강(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사무총장)



## I. 들어가는 말

제 6 차 교육과정기는 1992년 6월부터 1997년 12월 제 7 차 교육과정 개정 고시 이전까지이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에는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다.

먼저, 교과서와 관련된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교과서연구소가 발족(1992. 8. 오늘의 한국교과서연구재단되었으며, 교과용 도서의 외형 체제와 편집 체제 등을 규정한 ‘교과용 도서 체제 기준’이 제정(1992. 8.)되었다. 그리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가 세 번(중학교: 1992. 8., 고등 학교: 1992. 12., 초등 학교: 1995. 11.) 있었다.

또, 교과용 도서의 저작권 관련에 있어 교과서에 게재하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어서 교과서에 게재되는 저작물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은 우리 나라 교육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5 년간 유예 기간(저작권법 제 23 조)을 두게 하였다(1994. 7.).

이 밖에도 국정 교과서제가 교육법 제 157 조에 위반한다는 소원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국정 교과서를 가지고 만든 부교재는 교육 당국의 가격 사정을 받도록 하였고(1993. 5.), 이 시기에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인해 국민적 반일 감정이 거세게 일어났다(1993. 7. ~).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이 시대 사조나 교육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여 선포 후 25년 만에 초·중등 교과서에서 삭제하게 되었다(1994. 8.). 또, 말썽 많던 초등 학교 교과에 ‘영어과’가 정식으로 도입되었으며, 1997년 3월부터 영어 수업이 시작되었고,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이 1997년 12월 13일자로 ‘기본 교육법’과 ‘초·중등 교육법’ 등으로 분리·개편되었다.

제 6 차 교육과정은 21 세기를 대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민주화, 정보 사회화, 고도 산업화, 국제화, 통일 대비 등 급격한 시대적, 사회적 변동에 대비하고, 초·중등 학교의 기초·보통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룩한다는 목표 아래 도덕성 함양과 창의성 개발에 역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제 6 차 교육과정에 의한 2 종 도서(당시의 검정 도서를 가리킴.)는 중학교는 제 5 차 교육과정기의 38 책에서 59책으로 늘어났으며, 합격 종수는 5 종에서 8 종으로 확대되었다. 고등 학교의 2 종 도서는 일정 수준에 달한 교과서는 모두 합격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여 합격 종수 제한이 철폐되었다. 초등 학교는 영어 교과서가 검정화되었으며, 1977년 1 종 도서(당시의 국정 도서를 가리킴.) 제도가 신설된 후 처음으로 초등 학교에 검정 교과서가 탄생하였다.

## II. 제6차 검정 교과서 제도 개관

제 6 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은 학교급별로 시행되었으며, 먼저 중학교를, 그 다음 고등학교를, 그리고 국민 학교(영어과)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의 검정 업무는 제 5 차 때 실시했던 절차대로 검정 공고, 접수, 심사 본 접수, 합격(1 차, 최종)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다만 고등 학교 교과서의 추가(재검정) 검정 공고가 있었다. 제 6 차 교육과정기에 실시한 검정 업무 중에서 특기할 일은 검정 도서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 높은 심사 기준을 교육 당국, 출판사 등 관계자와 공동 논의 후에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그 후, 2종 도서의 검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 심사 원칙과 검정 실시상의 유의점 등을 엄밀하게 작성하여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심사 기준은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전에 교과서 출판사의 편집진, 저작자, 교육부 편수관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공청회 형식의 논의를 가진 것은 과거에 볼 수 없는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 1. 집필상의 유의점

제 6 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은 제 3, 4, 5 차 교육과정기의 ‘집필상의 유의점’에 비해 과감하게 정리된 것이 특이하다. 즉, 과거에 반드시 포함되었던 일반 지침 항목이 대체로 30 개 정도였는데, 제 6 차 때에는 7 개로 줄었으며, 이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과거의 것에 비해 4 분의 1로 축소되었다.

제 6 차 때의 항목은 ① 관련 법령의 준수, ② 교육과정의 구현, ③ 교육의 중립성 유지, ④ 교육내용의 분량, ⑤ 표현·표기의 정확성, ⑥ 교과서·지도서의 체제, ⑦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 등이었다.

교과목별 지침도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 즉, 제 6 차에서는 ① 내용의 선정, ② 내용의 조직, ③ 단원의 구성, ④ 내용의 수준과 범위 등으로 형식화되었다. 그런데 이 교과별 지침 항목은 과거의 일반 지침(공동 지침)에 있는 항목이 교과별로 이행된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항목 수는 적어졌으며, 상당히 정선된 점을 찾을 수 있다. 즉, 항목이 적어진 것은 항목 수가 많을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그 결과 합격 교과서의 개성이 뚜렷하지가 않으며, 합격 교과서가 거의 비슷해지는 단점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제 6 차 교육과정 때의 교과용 도서 체제는 ‘교과용 도서 체제 기준’(교육부 고시 제 1992-13 호)이 적용되었으며, 이것은 교과용 도서의 편찬·집필 및 검·인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체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



그 후, 2종 도서의 검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 심사 원칙과 검정 실시상의 유의점 등을 엄밀하게 작성하여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심사 기준은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전에 교과서 출판사의  
편집진, 저작자, 교육부 편수관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공청회 형식의 논의를 가진 것은 과거에 볼 수 없는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데 이 기준은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저해 요인이 된다는 것과 교육계 및 출판계에서도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여 1995년 1월 19일자로 폐지되었다.

제 6 차 교육과정 때의 교과서 외형 체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제6차 교육과정기의 외형 체제

구분	판형·서체	쪽수	지질	색도	제본
중·고등학교	○ 판형 · 중학교 : 국판, 크라운판(과학), 4×6 배판(음·미·영·부도) · 고등 학교 : 국판, 크라운판(과학), 4×6 배판(부도, 음·미·영·상업 등)	· 교과서 : 기준 쪽 수의 10% 가감 · 지도서 : 기준 쪽 수의 15% 가감	· 표지 : 백색 엠보싱 180~220 g/m <sup>2</sup> · 면지 : 백상지 100~120 g/m <sup>2</sup> · 화보 : 아트 100 g/m <sup>2</sup> · 속 표 지 : 100~120 g/m <sup>2</sup> · 본문 : 교과서 미색 중질지 70 g/m <sup>2</sup>	· 표지 : 4 도 이내 · 면지 : 4 도 이내 · 화보 : 4 도 이내 · 속표지 : 2 도 이내 · 본문 : 1~8 도 이내 (미술 : 4, 부도 : 8, 서예 : 2, 수학·과학 : 2, 기타 : 1)	· 부도 : 반양장 · 실업계 : 호부장, 좌철 (일부) · 기타 모든 교과서 : 무선철 좌철
	○ 서체 · 중학교 교과서 : 16 급~24 급(11 pt~16 pt) · 고등 학교 교과서 : 15 급~24급(10.5 pt~16 pt) · 지도서 : 13 급(9 pt)				

※ 자료 : 교육부, '교과용 도서의 체제 기준' 과 제 6 차 때의 집필상의 유의점 등을 필자가 정리함.

편집 디자인에 대해 교육 당국에서는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기능이 강화된 교과서의 편찬과 자율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서 편찬을 제시'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내용 조직과 함께 외형 체제인 편집 디자인이 함께 기능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편집 디자인을 너무 개방하면 혼란을 염려했던 것 같다.

제 6 차 때의 교과서 편찬의 특징으로는 별다른 것이 없으며, 제 5 차 때와 같이 편집 디자인 개념의 부재 속에 또다시 세월만 흘러 보낸 결과가 되었다.

## 2. 검정 기준

2 종 교과서의 검정을 위한 기준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8660 호) 제 15 조에 의하여 교과목별로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이 검정 기준은 제 5 차 교육과정 때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

제 6 차 교육과정에 의해 1996년 신입생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2 종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을 마련한 그간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94. 5. 1~19. : 교육부 고등학교 2 종 교과서 검정 기준 연구 위원회에서 시안 작성
- 1994. 5. 20~25. : 검정 기준 영역과 검정 방법 영역으로 나누어 집중 작업
- 1994. 6. 16~18. : 충청 남도 온양에서 시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각계 550명 참석)

- 1994. 8. 25.~9. 5.: 공청회 의견 교과별로 수정·보완
- 1994. 9. 9.: 교육 전문가 5명 참여, 종합 검토 협의회에서 최종 시안 마련
- 1994. 9. 10.~10. 25.: 편수관 회의에서 검정 기준(안) 확정
- 1994. 11. 14~1995. 1. 19.: 교육부와 한국 2종교과서협회에서 시안 열람
- 1995. 3.: 검정 기준 확정(교육부)

### 3. 검정 결과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한 2종 교과서 검정에서 중학교의 경우, 11개 교과에서 교과서 발행 점유율이 10% 이상 차지하는 종류는 최소 4종에서 최대 6종이었다. 중학교의 경우, 합격 종수가 8종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합격 종수가 적정 수준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되고, 사용자의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소수의 출판사가 전분화로 나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58개 교과목에서 교과서 발행 점유율이 10% 이상 차지하는 종류는 최소 2종에서 최대 6종이었다. 고등학교는 합격 종수의 제한 없이 교과서로서 적합성만 갖추면 모두 합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합격 종수가 평균 수준에 비해 많았다.

- 중학교 도서 검정: 최종 합격 종수는 과목당 8종으로 교과서 232책과 지도서 224책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합격 종수가 5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 데 있다.
- 고등학교 도서 검정: 고등학교의 검정은 1992년 12월에 검정 공고 후, 1995년 1월 20일부터 접수 예정이었으나 1월 16일 교육부의 정책이 참고서가 필요 없는 도서 편찬으로 변경되어 심사본 접수를 6개월 늦추어 6월 28일부터 실시하였고, 최종 합격은 1995년 10월 2일 공고하였다.

**【표 2】 고등학교 2종 교과서 검정 결과**

교과목 수	1995 검정			1996 검정			재검정 포기	합격 총수 계
	접수	합격	불합격	접수	합격	불합격		
58	786	483	303	157	122	35	146	605

※ 자료: 교육부, 「교과서 백서」, p. 135.

- 초등학교 도서 검정: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과 교과용 도서 1종 뿐이다. 1998년 2월 24일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 검·인정 관리 업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됨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용 도서 검정 관리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제 7차 교육과정기에는 초등학교의 2종 도서가 폐지됨에 따라 초등학교 검정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상으로 언급한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 교과서 개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 시기에 교과서의 검정 업무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준거하였으며, 이 규정은 제 6차 교육과정기에 6차례 개정되었다.

【표 3】 제6차 교육과정기의 검정 교과서 개편 내용 등

연월일	교과서 개편 내용 등
1992.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공고(제1992-14호), 1995학년도부터 사용할 중학교 2종 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정 교과목 : 영어 외 10 교과목</li> <li>2. 검정 기준 : 공청회를 통해 검정 기준 공개(사상 초유의 일)</li> <li>3. 예정자 등록 : 1993. 3. 30.</li> <li>4. 심사본 접수 : 1994. 1. 20.~1. 31.(11과목에 244종, 720책, 70개 출판사 접수)</li> <li>5. 1차 합격 : 1994. 3. 15.(영어 외 9교과 88책)</li> <li>6. 최종 합격 교과서 : 88종 232책, 지도서 80종 224책</li> <li>7. 신청 자격 : 3년간 10종류 이상 도서 발간 실적이 있는 자</li> </ol> </li> </ul>
1992. 1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공고(제1992-19호), 1996학년도부터 사용할 고등 학교 2종 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정 교과목 : 국어(문학 등) 외 58종(보통 교과 : 54종, 전문 교과 : 5종)</li> <li>2. 검정 기준 : 공청회를 통해 검정 기준 공개</li> <li>3. 예정자 등록 : 1993. 6. 30.</li> <li>4. 신청본 접수 : 1995. 1. 20.~1995. 1. 31.(교육부에서 1995. 1. 16.자로 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였으나 교육부 발표로 1995. 6. 28.부터 접수하였다.</li> <li>5. 최종 합격 : 1995. 10. 2.(58종 605책, 1996년 재검정 포함)</li> <li>6. 신청 자격 : 원고 집필자. 다만, 규정 제14조 제2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i> </ol> </li> </ul>
1995.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고시 제1995-7호               <p>국민 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고시(1997. 3. 1. 3학년부터 시행)</p> </li> </ul>
1995. 1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공고(제1995-53호), 1997학년도부터 사용할 국민 학교 2종 교과서(영어) 및 고등 학교 2종 교과서 재검정 실시 공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정 대상 : 3~6학년 영어 교과서 및 녹음 테이프, 지도서 및 비디오 테이프</li> <li>2. 신청 자격 : 원고 집필자. 다만, 규정 제14조 제2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i> <li>3. 신청 기간 : 1996. 7. 2.~7. 3.(3학년 한정)</li> <li>4. 집필상의 유의점 : 1995. 11. 23.</li> <li>5. 합격 결정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li> <li>6. 1차 합격 발표 : 33개 출판사 45책 중 14책만 합격(심사 위원 대학 교수 30명, 초·중등 교사 20명, 원어민 연구 위원 6명 등)</li> <li>7. 최종 합격 : 8개 출판사 12책</li> </ol> </li> </ul>
1995. 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의 체제 기준' 폐지</li> </ul>

※ 자료 : 허강, 「우리 나라 교과서 연표」(「교과서연구」 제20호), p. 144를 보완한 것임.



#### 4. 교과서 채택


제 6차 교육과정기의 출판사 수는 초등학교 10 개, 중학교 37 개, 고등학교 57 개였으며, 초·중등학교의 증복된 것을 한 개로 계산하면 실제 출판사는 68 개이다. 이 시기에도 다른 검정 때처럼 교과서 채택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소문이 연례 행사처럼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학교의 도서 선정(채택)시에는 교과별 담당자 회의, 도서 선정 위원회 등을 필수적으로 조직·운영하도록 하여 도서 선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특히 1995년도에는 출판사 스스로가 채택의 부조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제하거나 결의 대회 등을 한국 2종교과서협회를 중심으로 열기도 했다.

### Ⅲ. 맺는말

앞의 ‘들어가는 말’에서 제시한 것처럼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 교과서 개편시에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교육적 변동 사항이나 개방화 물결이 과거에 비해 거세게 있어났으며, 특히 사회 현상을 다양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검정 확대가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초등학교 영어과가 검정 도서에서 국정 도서로 변경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교과서 정책의 하나가 된다.

제 6차 때의 교과용 도서 편찬 체제는 먼저 교수·학습 과정 중심의 교과서로 편찬(열린 교과서 체제가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단계)되어야 하나 정부의 정책 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단원 전개를 창의적으로, 또 다양한 편집 디자인 기법의 도입으로 외적 체제를 상향·제고시켜야 하는데 이 분야에도 정책 개발이 미진하였다. 그리고 교육 당국에서는 자율 학습에 도움되는 교과서 개발을 주장하면서도 교과서 체제(특히 쪽수, 색도, 디자인 등)에 대한 융통성을 주지 않아 자율 학습 교과서 편찬은 명목상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 밖에도 재검정제의 문제점과 합격 종수 과다 등으로 인한 교육상 비효율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검정 업무 후에 제기되는 집필 기간의 연장, 심사위원 수의 증가 및 심사위원의 자질 등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안겨 주기도 했다.

끝으로, 검정 교과서를 연구·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일이며, 여기에는 시의에 적합한 정책 개발과 교과서가 교육에 끼치는 효율성 제고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1969~1977 수산·해운 편수관〉

## ‘교과서의 날’ 제정에 대한 소견

글 박용진(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회장)



나와 교과서 저작과 관련된 인연은 꽤 오래이다. 사범 학교 재학 시절 『서양 교육사』의 저자인 이수남 교장님(후에 문교부 편수관)과의 만남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저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원고 뭉치를 주시면서 한 번 읽어 보라신다. 무심코 받아 읽어 가면서 조금 어렵다고 느꼈다. 나의 읽어가는 태도를 보시고, 무어 잘못된 곳이 있는가라고 물으셨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우리 수준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 드렸다. 그랬더니 학생 수준에 맞게 고쳐 써 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특별한 생각 없이 원고지 20매 정도를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다듬어서 정리해서 드렸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약 6개월간 저자와 나는 원고지와 씨름을 하게 되었다. 그 때, 저자의 말씀은 “좋은 교과서란 학생의 수준에 맞는 것이라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다른 친구들과 독회도 해 보라신다. 그래서 친구들과 토론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했다. 아마 1949년 겨울에 탈고해서 가제본한 책자를 문교부에 제출, 검정 교과서로 채택된 바 있다. 이 때, 나는 밤낮없이 무리한 작업으로 치통을 앓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자는 아무리 좋은 교육 자료라도 배우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서 편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

다고 믿어진다. 물론, 그 교과서로 공부하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뿌듯함을 느꼈다.

그 뒤, 나는 1951년에 저자의 학교에 발령을 받고 근무하면서 ‘초등 국어 1-1’ 별칭 ‘바둑이와 철수’를 가르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6·25 전쟁 중에도 교과서만은 다른 일반 서적보다는 양질의 종지로 인쇄해서 공급된 것 같다. 물론, 양질의 지질이었던다고는 하나, 교과서는 당시 학교 교육의 유일한 교재였기에 학부모님들이 달력 같은 비교적 두꺼운 종지로 책을 써서 소중하게 다루도록 했다. 아마 이런 관습은 1982년에 새로운 체제를 갖춘 교과서가 나오기까지 계속 되었다고 회고한다.

그러던 나는 1977년에 문교부 편수국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교과 교육 전문가인 편수관 공채에 응시해서, 6월에 역사 담당 편수관으로 발령을 받았고, 수석 편수관으로 보임되었다. 그 때부터 새로 부임한 편수관들과 선임 편수관들은 새로운 체제의 교과서를 개발하는 업무에 매달렸다.

예를 들면, 1977년 7월까지 새로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을 펴내는 일이었다. 날마다 일과 시작부터 종료 시간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밤 10시가 넘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율



과거 교육부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 업무를 담당했던  
 편수관들의 연구 단체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는 2006년 2월 24일에,  
 우리 정부가 수립된 1948년 당시 문교부가 처음으로 학생 교육용으로 저작 편찬한  
 ‘초등 국어 1-1(일명 바둑이와 철수)’의 발행일인 10월 5일을  
 ‘교과서의 날’로 제정·선포하였다.



연수를 했다.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국내의 학자들의 주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 문교부가 규정하는 교육과정의 개념은 무엇인가?’ 또, ‘좋은 교과서란 어떤 것인가?’ ‘세계 각국의 교과서 체제는 어떠한가, 또 ‘교과별 교과서의 편찬 체제는 어떠한가?’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자유 토론하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개념과 개발 체제에 접근하여 갔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인식과 견해의 차이로 빚어진 격론은 오히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공통의 개념과 통일된 인식을 도출하게 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 이 때, 전 편수국장이었던 홍용선 교수와 강우철 교수의 강론은 교육과정과 새 체제의 교과서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 집필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구성 방향, 학교급별 목표 및 교과(목)별 목표의 반영,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대한 분석과 기술, 학습 지도와 평가 등에 대한 편성·운영 지침의 적절한 수용 등에 관한 공동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유의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교과서 체제에 대한 기준 제시와 함께 교과별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구안에 대해서도 다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모든 편수관은 담당 교과(목)별 집필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편수관 전체 협의에 부쳐 상호 견해를 교환하고 보다 창의적인 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보완할 것 등도 신중하게 논의하여 새로운

교과서에 대한 내용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진력하였다. 오직 새로운 교과서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6~7월의 무더위를 식힐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과서 편찬사상 처음으로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이란 교육 문서가 집대성되고, 이는 다시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별로 분책되어 7월 22일 활자화하여 발간되었다. 이는 오늘날까지 교과서 집필의 하나의 기준으로 이어오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참여한 편수관들의 각고의 산물로 앞으로도 더욱 승화·계승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 당시 편수 기구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었던 문교부 장관을 비롯한 차관과 실·국장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뜨거운 격려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은 편수관들에게는 큰 활력소가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회고하면서 감사한다.

교과서 편찬 기본 계획의 한 과정으로 7월 29일에 자유 경쟁형의 검정 교과서 편찬 관련 출판사와 저자를 대상으로, 8월 19일에는 정부가 발행하는 이른바 연구·개발형인 국정 교과서를 위탁받은 정부 산하 기관과 연구 기관, 각 대학 부설 교과서 개발 연구소와 특수 분야의 교과 교육 연구회 등 약 200 명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에 대한 진지한 설명회가 각각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모임에 참가한 교과서 출판사와 저자 및 연구회 등은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유의점에

충실한 교과서를 개발할 것을 다짐했다. 성실하고 참신하며, 교과서 집필의 분명한 제시에 감동하고, 새 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두 번에 걸친 설명회는 매우 성공적인 모임으로 평가되고, 과도기적인 편수관들이라기보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과서 문화를 창출하는 연구적이고 생산적인 팀으로 각광을 받는 역사적인 회동이기도 하였다.

특히, 연구·개발형의 국정 교과서를 위탁받은 연구 기관들은 보다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연구와 교과서 집필의 기획을 담당하는 연구진 구성, 연구진의 연구 기획을 충실하게 이행함과 아울러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집필하는 집필진 구성, 그리고 이들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보완하는 심의진 구성을 의무화하고 참여자 모두를 실명제화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교과서가 되도록 장치를 하였다.

아울러 연구진과 집필진, 그리고 심의진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주 회동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또 국내외의 교과서와 비교·분석도 해가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과서를 개발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편수관들은 위탁 연구 기관을 선정하는 일, 또는 해당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회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일, 수시로 위탁 연구 기관과 회동하여 협의·지원하는 일들에 전념하였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연구진, 집필진, 심의진을 국정 교과서의 개발에 준용하도록 권고하여 시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힘들고 어렵게 교과서의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978년 12월에 초등 학교 삽화를 담당하던 작가들이 적은 원고료 때문에 교과서 개발 진행상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삽화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꾸며진 원고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또다른 교과서의 원고이다.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권위에 합당한 예우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했다. 현장 교사에게 의뢰도 해보고, 교과서 삽화가를 양성하는 대안도 나왔다. 그러나 교육용 삽화, 교과서용 삽화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단시일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작가들의 협조를 구하는 길밖에 없었다.

서울 퇴계로에 있는 P 호텔에 삽화가들을 초청하여 설득을 겸한 만찬 모임을 가지고, 그 동안 교과서 삽화가 우리 학생들 교육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여 양질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청하면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교과서 뒤표지 이면에 연구진, 집필진, 심의진과 함께 삽화가의 이름을 밝혀 예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약 삽화 전시회를 열었을 때, 몇 명의 어린이가 전시장을 방문하겠는가? 그러나 교과서화된 여러분의 삽화는 적어도 100만 명(당시 학년당 학생 수) 또는 600만 명(초등 학교 전 학년)의 관람객이 고정된 고객으로 여러분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삽화 한 점 한 점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고, 질서를 지키며, 과학을 탐구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연출하며, 그 속에서 꿈과 용기를 가꿀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삽화 원고료 이상의 명예와 긍지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편수관이나 저자와 같은 교육적인 신념으로 좋은 작품을 교과서에 전시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그 결과, 첫 대면했을 때의 삭막한 분위기와는 달리 작가의 명예를 걸고 좋은 작품으로 교과서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해 주었다. 참으로 고마울 뿐이었다. 교과서 개발은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공동의 작품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편수관 특유의 감격과 희열을 삽화가의 참여 동의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그러기에 교과서와 관련한 자기 나름의 추억도 간직하고 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장애와 역경을 딛고 세계사를 빛낸

인류의 삶을 익히고, 꿈을 키워 나아갔다. 좌절과 포기를 용기와 희망으로, 또 자신을 성찰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길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자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자료가 교과서인 것이다. 그것은 학교 교육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국가 수준의 교육 문서, 곧 ‘국민 교육의 기본 설계도’인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수많은 자료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선정·조직하는 핵심적인 교육 자료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한 권의 교과서가 탄생하기까지는 편수관은 물론, 많은 학자와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 전문가가 동원되고, 전문 삽화가와 디자이너가 참여하며,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연구진과 편집진, 그리고 인쇄를 담당한 기술진이 어우러져 국민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여기에 현장 교원과 학생이 함께 검증에 응하여 교과서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 정부 차원의 심의와 검정 절차를 거쳐 편찬되고 생산되어 공급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이처럼 중요한 교과서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다. 농업 중심 사회에서 산업 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의 단계를 지나, 지금은 지식 기반 사회를 열어가는 시대를 최단 시일에 맞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절대 빈곤에서 선진 경제 대국으로의 진입, 정치적으로 힘의 강제에서 민주화 사회로의 발전,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결국은 한국 교육의 성과요, 그 배경에는 국민성 형성에 뿌리를 둔 교과서의 위력이 함께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과거 교육부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 업무를 담당했던 편수관들의 연구 단체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는 2006년 2월 24일에, 우리 정부가 수립된 1948년 당시 문교부가 처음으로 학생 교육용으로 저작 편찬한 ‘초등 국어 1-1(일명 바둑이와 철수)’의 발행일인 10월 5일을 ‘교과서의 날’로 제정·선포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이 읽는 일반 도서의 ‘책의 날’이나, ‘잡지의 날’은 있었어도,

특정 다수인인 학생용 도서의 ‘교과서의 날’은 제정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서, 이제는 그 동안의 교육 정책을 되살피면서, 양질의 교과서가 보다 세계적인 민족을 양성할 수 있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

앞으로 매년 ‘교과서의 날’에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교과서의 저작과 발행, 연구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그 동안 소외되었던 교과서 문화 관련 유공 인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교과서 전시회와 우수 교과서 시상, 교과서 체험 및 추억에 대한 문예 작품 공모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을 위한 학술 세미나 등 다채로운 교과서 관련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이 한글날이 들어 있는 ‘문화의 달’ 10월에 교과서의 날이 생겨서 그 의의와 교육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교과서 발행과 공급에 종사하는 기관과 전문 업체의 임직원들도 이 날을 기념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뜻깊은 행사를 전개함으로써 더욱 양질의 교과서 개발과 원활한 공급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교과서 문화 사업에 대한 긍지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교과서의 날’을 제정·선포한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는 ‘우리 나라에 새로 생긴 교과서의 날을 계기로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함으로써, 앞으로 선진국 수준 이상의 질이 높은 교과서를 학생에게 안겨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교과서 출판사, 특히 기업과 사회 단체 등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편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연구·개발하고, 저작, 편찬, 발행, 공급하는 모든 이들이 교과서의 질적 개선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바로 교육 발전이요, 곧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18)

양철우

-(주)교학사 대표이사 사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 업계의 선두 주자이신 (주)교학사의 양철우 사장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학사는 1951년에 창립하여 지난 50여 년 동안 거의 전 종목에 걸친 초·중·고등학교용 학습 자료와 검·인정 교과서를 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일부 국정 교과서도 발행하고, 특히 첨단 인쇄 시설의 도입과 동영상 사업에도 역점을 두신다고 들었습니다.

교학사에 대하여 좀더 알고 싶은 사항들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우선 교학사 하면 『표준 전과』, 『완전 학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학사의 설립 이념과 회사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1951년에 ‘교육의 길잡이’로서, ‘학생의 동반자’로서의 올곧은 교육 정신으로 교학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어느덧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학사는 오로지 출판이라는 교육 사업 외길로 초·중·고등학교의 학습 도서를 출판하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

그 동안 교학사에서 발행한 학습 도서는 제2의 교과서 역할을 해 왔으며, 부모에서 자녀에 이르기까지 2대, 3대에 걸쳐 뿌리 깊은 애정과 믿음을 받을 수 있는 학습 자료로 성장하였습니다. 아까 거의 전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정필 교과서가 검정 도서 발행사 중 가장 많은 백여 종에 달합니다.



또, 국정 교과서도 초등 국어, 중학 국사, 고등 국어, 국사, 농업계·상업계 과목 등의 발행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계약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각종 사서류, 원색 도감류, 컴퓨터 교

재, 논술 교재, 대학 교재 등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판 사업은 바로 건전한 이성과 창의력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교학사의 직원 수는 660명이며, 본사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고, 공장은 금천구 가산동에 있습니다. 저는 교육과 학문의 발전을 염원하면서 도서 출판에 힘써 오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유능한 교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에 창립한 ‘용옥 장학문화재단’이 그것입니다. 여기서는 장학금의 지급과 전국의 중학교 영어 교사들의 해외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각 시·도의 교육청에 의뢰하여 30명에서 40명까지 추천을 받습니다. 이 선생님들을 미국의 하와이 대학에 위탁하여 4주 동안 영어 교수법을 연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와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수업도 참관하고 워크숍도 하며, 현장 학습을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이러한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 요즘에는 대부분의 출판사가 고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과서 출판업은 교육 진흥과 기업의 이



윤 추구라는 양면성을 지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진흥을 위하여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교과서란 무엇인지, 또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점에서 볼 때, 교과서 출판업이 다른 사업과 달라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과서 출판사는 이윤 추구에 앞서 교육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윤이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교육적이지 못한 출판물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육 출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학사는 '2세 교육을 위해 이바지한다.'는 기업 정신에 따라 양질의 학습용 도서를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과서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북돋울 수 있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집필자가 우수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능력을 갖춘 편집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나 검정 기준,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 문장력 등이 저자 이상으로 우수해야 합니다. 결국 편집자의 질 여하에 따라 교과서의 우열이 가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사에서는 편집진의 능력 향상과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자체 연수, 파견 연수 등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아동·학생 수의 감소,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의 변화 추이 등에 따라 예전과는 달리 학습 도서의 출판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학사는 전자 매체를 비롯한 새로운 매체 도입에 힘쓰고 있습니다.

**3** 지금 말씀하신 매체 도입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 교학사가 축적해 온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은 초·중·고등 학교, 일반 사서, 도감, 컴퓨터 기술 등으로 나뉘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고 학습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교학사가 출판한 각종 도서와 교과서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참고서를 이용하는 강의도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보다 빠른 진도로 강의를 진행하여 선행 학습이나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논술 첨삭, 온라인 논술 모의 고사, 효과적인 교육 방법론 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전문 교육 콘텐츠 개발, 평생 교육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학원 관리 프로그램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학사 영어랩도 있습니다. 교학사 영어랩은 미국 현지에서 교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검증 및 확인을 거쳐 완성한 자연 습득 방법(Natural Acquisition Method)을 도입한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4** 교학사는 출판과 인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학사의 인쇄 사업은 풍부한 인쇄 경험과 우수한 인쇄 시설을 바탕으로 엄격한 품질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D.T.P/기획, 편집, 디자인 부문입니다. 편집과 디자인은 편집부와 개발실에서 이루어지며, 편집된 내용은 주로 본사와 공장 간의 직통 Server를 사용하며, 외주 작업물은 온라인(인터넷, 웹하드), CD 등을 통해 공장의 Pre-press 시설로 옮겨지고, 필름 출력기나 C.T.P를 통해 인쇄 기능을 고화질, 고품질로 형상화하여 인쇄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로, Digital Pre-press(C.T.P/제판/소부) 부문입니다. 2002년도에 C.T.P를 도입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현재 인쇄 업체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CIP4(Corporation for Integration of Plan, Pre-press, Press and, Post-press)를 전체 작업 공

정에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셋째로, Web-Offset Press(운전) 부문입니다. 교학사는 고품질의 인쇄물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첨단 기술이 부가된 인쇄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CIP4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ost press(제본-무선, 중철) 부문입니다. 무선 제본 시스템은 4대를 가동하고 있으며, 2005년에 CIP4에 대응할 수 있는 전자동 독일 Kolbus 무선 제본기를 도입하여 시간당 최대 15,000 권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5** 교과서 출판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교학사에 부설되어 있는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과 전문 출판사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경영상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흑자 경영을 이룩해야만 교과서의 질 개선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교과 학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와 실제적인 기법과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학사는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를 설립하고 국어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규모로 보아 앞으로는 수학 교육에도 역점을 두려 하고 있습니다.

**6**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에서 하는 연구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는 언어 학습 이론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일선 선생님들이 국어 교육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발췌·수합하여 새로운 국어 교수·학습 방법을 현장에 안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으로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에 대한 교육 이론에

대한 연구, 다양한 학습 자료의 개발, 연구 학교 및 학술 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어 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일선 학교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어 교육이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영어가 공용어로 되어 간다고 할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한국어 교육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끝으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대하여 하시고 싶은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설립을 주창한 한 사람으로서 당초에는 교과서 연구에 대한 큰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 또는 대학 강사들 중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중국, 인도,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에 그 나라의 언어가 통하는 선생님들을 파견하여 일정 기간 그 나라의 교과서 연구소나 대학에 속해 있는 교과서 연구소 등에서 그 선진국의 교과서 제도, 교과서에 대한 교육 과정 등을 연구하게 하고, 파견된 선생님들이 매월 연구 논문을 제출하게 하여, 이 연구물을 책자로 발행해서 배포하고, 그리고 연구가 끝나면 파견된 선생님들이 돌아와 선진 국가의 좋은 교과서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여 선진화된 교과서를 발간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학생들에게는 좋은 교과서를, 선생님들에게는 좋은 교과 수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을 선진화로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꿈이었습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그 동안 ‘교과서연구’지의 발행과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을 많이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쪼록 교수·학습에 직접 도움이 되는 교과서 연구, 출판사나 교과서 저술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 대담 / 최해홍(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무국장)



## 2005년도연구보고서소개

### 수학과 수준별 교과서 체제 개발에 관한연구

#### 〈연구 보고서 2005-1〉

이 연구는 자기 주도적 학습 및 수준별 학습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학 교과서 체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수준별 이동 수업을 전제로 한 다양한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의 체제 개발과 모형 예시, 현장 적용의 전제 조건과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차기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정책 결정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미래의 수학 교과서의 개발 방향, 개발 체제 및 개발 예산 규모 등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 이 연구는 서강대학교 정순영 님(연구 책임자), 현대고등학교 김의석 님, 용산고등학교 최수일 님, 교육인적자원부 정경호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교과용 도서 학교 공급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연구

#### 〈연구 보고서 2005-2〉

이 연구는 교과용 도서 공급 체계 전반을 진단·분석하여 합리적인 교과서 공급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론적 분석과 현장의 요구 사항 수렴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교과서 공급 서비스, 교과서 공급 체계, 적정 수수료율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행 교과용 도서 공급 제도의 주문 및 반품, 수금과 정산 등을 포함한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교과서 공급 서비스의 실제 수요자인 교사와 학생들은 물론, 교과서를 학교에 공급하는 공급인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신현석 님(연구 책임자), 초당대학교 이 강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교과서 외적체제 개선에 관한연구

### 〈연구 보고서 2005-3〉

이 연구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도입에 따른 교과서의 외적 체제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나라와 외국 교과서의 외적 체제와 편집 디자인 현상을 조사하고, 교과서 본문 용지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실험·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교과서의 외적 체제와 편집 디자인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적 정책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각국의 교과서 체제 등 자료 확보와 국제 비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교과서 본문 지질의 개발·연구 및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여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대비한 우리 나라 교과서 편찬 체제에 관한 정책 판단 자료를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교과서의 질적 개선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허 강 님(연구 책임자), 혜천대학 이종국 님, 교육인적자원부 정민택 님, 한림성심대학 현영호 님, 한국검정교과서협회 강환동 님, 금성출판사 조성준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교과용 도서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 〈연구 보고서 2005-4〉

이 연구는 교과용 도서 모니터링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모니터링을 위한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즉 모니터링 의견 수렴 방법과 범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 및 보상, 모니터 요원의 선발과 관리, 심의 결과의 현장 전달 등 교과용 도서 모니터링제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교과용 도서가 단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 개발비나 기타 비용이 절약되고 교과서 발행사의 자료 축적과 전문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과용 도서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제의 도입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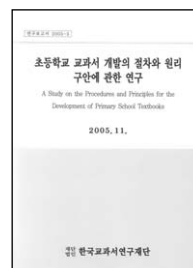
- … 이 연구는 경기대학교 유학영 님(연구 책임자), 서울여자중학교 김용주 님, 교육인적자원부 우종선 님, 수원수일중학교 정세훈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의 절차와 원리구안에 관한 연구

### 〈연구 보고서 2005-5〉

이 연구는 초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화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의 개발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초등 학교 교과서의 개발 절차와 원리를 구안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나라와 주요국의 교과서 개발 절차 및 원리, 내용 조직과 질문·화보 처리 방식을 분석하고 초등 학교 교과서 검정화에 따른 검정 절차와 개발 절차 및 개발 원리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초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제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과서의 질적 저하와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향후 교과서 개발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우리 나라와 외국의 교과서 단위 구성 및 내용 조직 방식, 질문·화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미래의 우리 나라 초등 학교 교과서 개발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 이 연구는 영남대학교 김재춘 님(연구 책임자), 경인여자대학 곽병선 님, 영남대학교 박소영 님, 교육인적자원부 김라경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문화관광부 고시 제 2005-29 호

## 교과용도서저작권보상금기준

- (1) 적용 기간은 1년(2006. 1. 1. ~ 2006. 12. 31.)으로 함.
- (2) 보상 대상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
- (3)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함.
-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 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 저작물을 편곡한 경우에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 (5)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함.
- (6)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1만 부 기준)

저작물별		보상 기준	보상 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710 원	수필, 논문,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 편 이상 이하	7,210 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 편 이상 1/2 편 미만	3,590 원	
		1/4 편 미만	2,160 원	
음악 저작물		1/2 편 이상 1 편 이하	4,640 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 편 이상 1/2 편 미만	2,310 원	
		1/4 편 미만	1,370 원	
미술·사진 저작물		1/2 쪽 이상 1 쪽 이하 크기	7,080 원	
		1/4 쪽 이상 1/2 쪽 미만 크기	3,530 원	
		1/4 쪽 미만 크기	2,110 원	

※ 최저 1만 부 이하는 1만 부로 하고 1만 부 초과부터 발행 부수에 비례함.

### ※ 임원 동정

○... 한병천 이사장 퇴임

우리 연구재단 제7대 한병천 이사장님께서 2005년 12월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셨습니다.

○... 곽현수 이사장 취임

우리 연구재단 제8대 신임 이사장에 곽현수 전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께서 2006년 1월 1일 취임하셨습니다.

### ※ 이사회 개최

○... 우리 연구재단은 2005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제1호 : 2005년도 출연금 기본 재산 편입

-제2호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정관 중 개정 정관

-제3호 : 200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제4호 : 이사장 선임

-제5호 : 임대 사업 추진 경과 보고

○... 우리 연구재단은 2006년 2월 23일 오전 11시 2006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제1호 : 2005년도 결산

-제2호 : 2006년도 교과용 도서 발행사 출연금 배분 보고

### ※ 2006년도 연구 사업 추진

○... 우리 연구재단은 2006년도 연구 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과제와 교과서 발행사의 추천을 받아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게 된 연구는 총 4개 과제로서 약 5.5천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연구 과제〉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김재복)

-사회과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김정호)

-교과서 인정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홍후조)

-검정 도서 수정·보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김만곤)

### ※ 2006 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 수종

○... 우리 연구재단은 2006 학년도 1학기 현재 사용 중인 교과용 도서를 발행사로부터 1,581권을 기증받아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의 교과용 도서 24,277책, 외국의 교과용 도서 6,521책 총 30,798책을 수집·소장하고 있습니다.

교과용 도서 기증에 협조하여 주신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대한교과서(주), (주)교학사, (주)천재교육, (주)금성출판사, (주)지학사, 향우산업(주)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 2006년도 발행사 출연금 납입

○... 우리 연구재단은 2006년 2월 23일 이사회에서 2006년도 발행사별 출연 금액을 다음과 같이 배분·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계속 기금을 출연하여 주신 발행사에 감사 드립니다.

-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 237,100천 원

- 대한교과서(주) : 115,700천 원

- (주)교학사 : 71,600천 원

- (주)천재교육 : 34,800천 원

- (주)금성출판사 : 24,350천 원

- (주)지학사 : 13,300천 원

-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3,150천 원

교과서 전문 연구지

# 교과서연구

『교과서연구』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성과·교육과정·교육 자료 등 교육 현장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연구』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 “원고를 모집합니다.”

### • 원고 내용 •

- 교과서 및 교육과정 관련 연구와 교육 현장의 교과 운영 현황과 교과서 활용 방안 등
- 교육 현장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특색 있는 내용 등
- 『교과서연구』를 읽고 느낀 점이나 새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수필·시·만화 등

### • 원고 매수 •

- 200 자 원고지 30 매 내외 (A4 용지 10 포인트 4 매 기준)

### • 원 고 료 •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 보내실 곳 •

- [(우)158-86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18-2 세원 빌딩 4층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편집자 앞  
(E-mail 주소 : editor@ktrf.re.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651-1950으로 문의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운영 개요

- 우리 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의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계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24,142	6,521	30,663
일반 자료	2,336	-	2,336
계	26,478	6,521	32,999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베트남,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란, 호주 등의 교과서 보유

### 열람 시간

구 분	시 간
□ 평일	09:00 ~ 17:00
□ 토요일	09:00 ~ 12:00
□ 공휴일	휴관

### 교통편



- 전철 : 전철 5호선 신정역, 2호선 신정 네거리역 각 3번 출구
- 버스 : 603, 6614, 6624, 6640, 5630 번